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임

공군

**“대한민국은
우리 공군이 지키겠습니다”**



photo log



당신과 함께한 2010년

2010년

하늘에 울리던

전투기 소리는

조국을 사랑하는 당신의

뜨거운 심장소리였습니다.

또 겹겹이 비행하는 당신을 위해

안전하게 정비하는 당신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각질원이

당신을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안전하게 정비한 전투기가

하늘로 힘차게 솟아오를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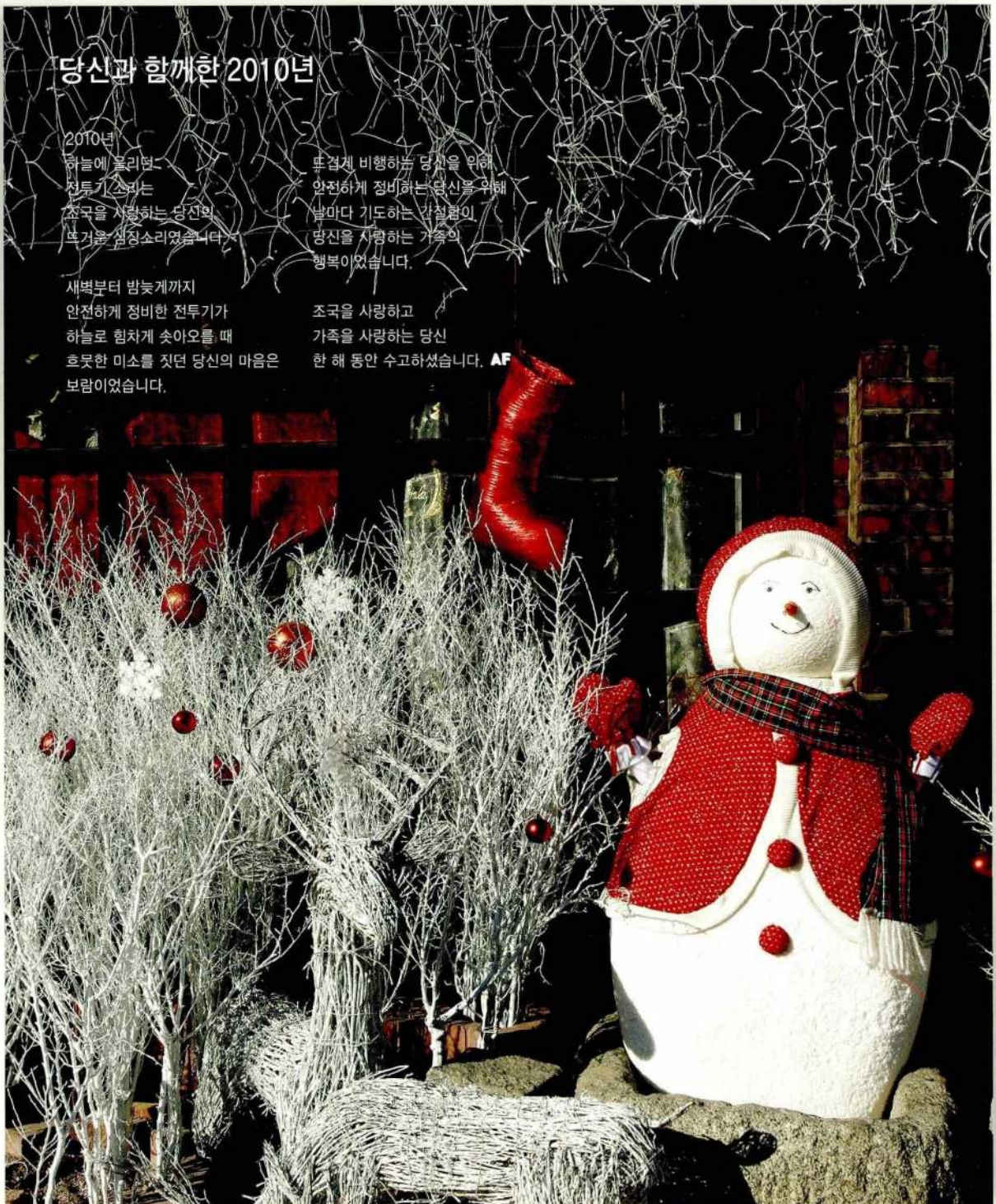
흐뭇한 미소를 짓던 당신의 마음은

보람이었습니다.

조국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당신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AF



GLOBAL & INSIGHT

10



- 10 Global AF 닮았지만 다른 길을 걷는 터키 공군력
- 14 Leadership+ 신뢰받는 리더의 조건
- 16 Learning Large Lessons 학습한 교훈과 그렇지 못한 교훈
- 30 World-Wide Vision Fighting Falcons

COVER STORY



북한군의 불법적인 연평도 포격 이후 비상대기 중인 F-15K와 전투기 조종사가 출격준비를 마치고 결연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
사진촬영 김윤해 | 사진작가

공군IN

18



- 06 Ready to Fight Tonight! 최전익 조종사와의 동행
- 18 기획특집 F-15K Slam Eagle을 찾아가다!
- 22 Right Now 지금 이 순간 지상에선!!!
- 24 참모총장 스케치
- 26 AIR FORCE MONTHLY
- 34 공군사 바로보기 항공 독립운동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공군(3)
- 36 6·25전쟁 60주년 종합 한 눈에 보는 6·25전쟁 60주년
- 38 6·25전쟁 60주년 기획연재 전후 전력증강과 한국공군의 성장
- 42 6·25전쟁 공군 영웅기9 참자리가 아닌 때, 구선진 소위
- 44 특별 기고문 한국항공소년단 창립 5주년을 맞이하여
- 52 생각하는 그림 불가능,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CULTURE 36.5

46



- 13 Preview 12월의 문화행사
- 23 책마을 인생이 허기질 때 바다로 가라
- 46 Hollywood English 레드
- 48 Behind the Canvas 러시아 에르미타슈 미술관
- 50 지구촌 음악산책 분주함 속의 여유, 뉴욕커의 예술 일기

OPINION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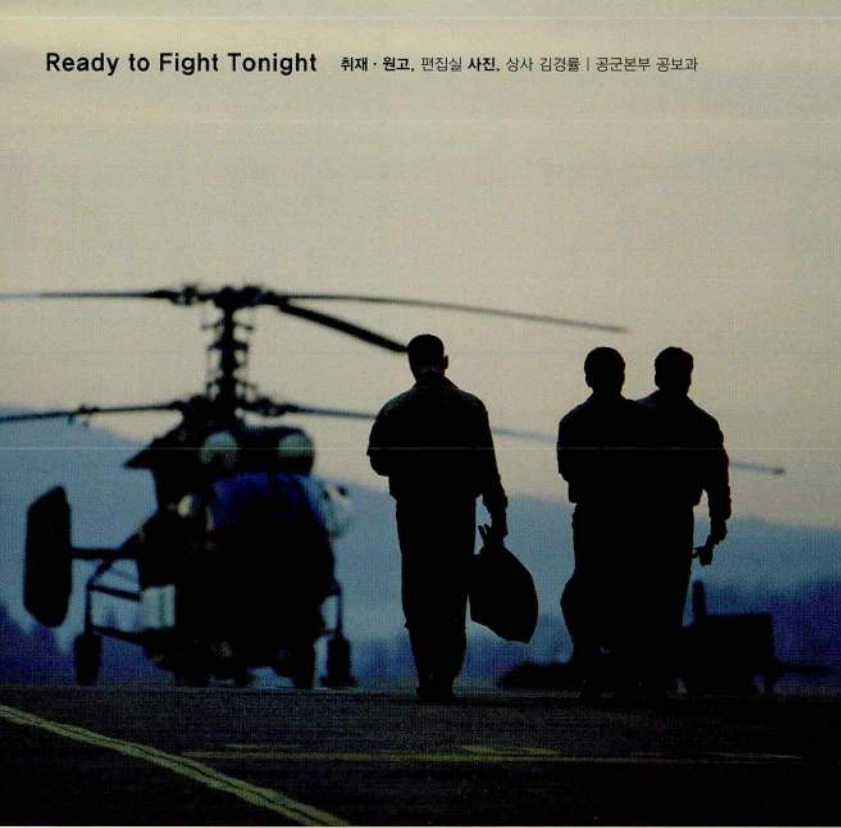


- 02 포토로그 당신과 함께한 2010년
- 54 Decalcomanie 내 생의 첫 경험
- 56 Letters to the Editor 월간 「공군」 10월호를 읽고서
- 57 독자엽서
- 59 퀴즈

MONTHLY MAGAZINE

VOL. 390. 2010. 12

발행일자 2010년 12월 3일(통권 제390호) 발행인 공군참모총장 발행처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02-506-6935, 042-552-6935 편집인 공군본부 정훈공보실장 대령 최영훈 기획·편집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중위 기용호 디자인·인쇄 국군인쇄창(960-7443~7445, 042-550-7443~7445) ※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는 공군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Always within Reach!

HH-32 회전익 조종사와의 동행







어둠이 남아있는 새벽, 제6탐색구조비행전대 235대대 건물 문 사이로 밝은 불빛이 새어나온다. 모두가 잠들어 있는 고요한 시간, 건물 안의 분위기는 마치 세상과 단절된 것 마냥 비행을 준비하는 회전익 조종사들의 움직임으로 분주했다. 금일 부여받은 임무를 위한 브리핑을 마치고 HH-32 Kamov 회전익기를 향해 걸어가는 조종사들을 쫓아갔다. 이별 선언을 하고 헤어지는 연인처럼 뒤도 돌아보지 않고, HH-32가 주기된 곳으로 곧장 향했다.

가을 산을 붉게 물들인 단풍이 그 빛깔을 잃어가고 서서히 자취를 감추기 시작하는 절기에는 건조한 날씨 탓에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인명구조 및 수색에 주로 투입되던 HH-32가 오늘은 산불진화 시범훈련에 참가했다. 최근 산림청과 맺은 협약으로 인해, 앞으로 공군은 군 사격장 산불 예방과 진화를 책임지는 한편 재난성 대형 산불 발생시 HH-32 헬기를 출동시켜 합동으로 산불을 진화한다. 특히 기존 산불진화용 장비보다 1.85배나 더 많은 양의 물을 담을 수 있는 산불진화용 물탱크인 벨리탱크를 산림청으로부터 대여받아 사용하기에 효율적인 임무수행이 기대된다. 이날 훈련 역시 벨리탱크를 장착한 HH-32가 참가하였다.

이날 훈련에는 공군을 비롯하여 산림청과 육군 회전익기가 참가하여 산불진화 합동 시범훈련을 실시했다. 전북 진안군 주천면에서 화재상황을 가정하여 실시된 훈련에서 공군의 벨리탱크를 장착한 HH-32가 인근 용강댐에서 채운 물로 2차리에 걸쳐 산불진화 시범을 선보였다. 해 뜰 무렵에 이륙하여 해 질 무렵에 부대로 복귀했다. 임무 중에 묻기 어려웠던 점들을 정 조종사 전동혁 소령에게 물었다.

Q. HH-32 Kamov를 소개하자면?

A. HH-32는 2차 불곰사업(2003년~2006년에 걸쳐 이뤄진 제2차 러시아제 무기도입사업으로, 러시아에 제공한 차관을 현물로 상환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7대가 도입되었습니다. 이것은 꼬리에 로터(회전날개)가 없고 주로터가 아래위 2중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아래의 로터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이것은 로터가 하나 뿐일 때로부터의 회전력으로 인해 헬기 몸통이 빙글빙글 도는 것을 꼬리 로터 없이도 막기 위한 것이다. 헬기의 힘이 매우 좋아서 강한 바람에도 끄덕없이 그 자리에 오래 떠있는 호버링(Hovering) 능력이 탁월하다. 그래서 산불진화에 최적이다.



Q. 헬기에 정·부 회전익기 조종사뿐만 아니라 구조사, 정비사가 함께 탑승한 이유가?

A. 산불진화에 나서는 1명, 탐색구조는 2명의 구조사와 함께 출동합니다. 정비사도 함께 탑승하여 회전익기의 후방 도어가 수면으로부터 2m 상공에 위치해야 할 때 고도에 대한 조연을 해주고 간단한 기체정비를 담당합니다.

Q. 금일 훈련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는?

A.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전국 산불진화 합동 시범훈련은 공군에서 주관하는 훈련이 아니기 때문에 상공에 머무르는 중간에 임무 상황이 자주 변했다. 긴급하게 주어진 새로운 상황에 대해 결코 당황하지 않고 타 군과 합동성을 유지하며 크루(Crew)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임무를 지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물론 결과적으로 좋았지만 금일 훈련은 이런 측면에서 실전적인 훈련이 되었다.

Q. 탐색구조임무에는 전시와 평시에 대한 구분없이 조난된 인명을 구조하는 것입니다. 그런 임무를 함께 수행하는 회전익기 조종사가 반드시 지녀야 할 능력은?

A. 6전대 탐색구조 요원들은 평시에도 전시 상황을 가정하고 훈련합니다.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비행해 들어가 착륙한 다음에 조난된 인원을 실어 오는 것이 아니라 정밀하고 신속한 비행이 가능하도록 항법능력, 계기비행능력, 저고도침투능력, 공수능력, 생지 이착륙능력, 그 밖에도 구조팀을 통솔하는 능력까지 다양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Q. 올해로 비행경력 12년째, 총 3,100시간의 비행기록 보유자로서 후배들에게 당부하고픈 말이 있다면?

A. 비행의 성공여부는 99%가 준비과정에서 결정됩니다. 전·평시 업무가 따로 구분되지 않는 탐색구조 회전익기를 조종하는 후배들이 실전상황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훈련에 임했으면 합니다.

비슷한 과거, 유사한 현재, 상이한 미래? 닮았지만 다른 길을 걷는 터키 공군력



흔히 터키를 '형제국'이라 한다. 6·25전쟁 당시 UN군의 일원으로 우리를 도운 혈맹국가이기도 하지만 문화적으로나 언어적으로 적지 않은 유사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해 열강들의 극심한 침략을 받았던 것도 그렇고, 민족 간 갈등에 의한 내분이나 외부적으로 군사적 위협에 직면해 있는 것도 닮았다.

터키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육군 중심의 국가이지만, 걸프전 이후 현대전에서 공군력이 갖는 위력을 실감한 이후 공군력에 대한 투자를 일찍부터 시작했다. 터키는 북쪽으로는 사이프러스섬을 놓고 지난 74년 그리스와 전쟁을 치른 이후 현재까지도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남쪽으로는 쿠르드 난민 문제를 놓고 이라크와 최근까지도 갈등을 빚었으며, 공군력 역시 이러한 외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으로 건설되었는데, 그 구성이나 규모 면에서 심지어 비슷한 시기에 같은 기종을 도입하는 등 전력 발달사에서도 우리 공군과 많은 유사성을 가진다. 여기에는 미국의 우방국이라는 하나 약소국으로서 수직적 동맹관계에 있었던 점과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해 외부 분쟁 요소가 많았던 점이 그 요

인으로 작용했다.

70년 중반 이후부터 우리가 F-5 계열 전투기 200여 대를 도입할 때 터키 역시 주력 전투기로 F-5 전투기 133대를 도입했고, 80년대 후반부터 우리가 F-16 계열 180여 대를 도입¹⁾하는 시기에 터키 역시 220여 대를 도입해 주력 기종으로 운용하였다. 이러한 경량 전투기를 보조하여 중심타격과 지상공격을 담당하는 기체로 F-4E도 운용중인 것도 닮았다.

공기업인 KAI(Korea Aerospace Industries)가 주축이 되어 군용기 면 허생산 또는 개량을 진행해온 우리와 마찬가지로 터키 역시 국영 TAI(Turkish Aerospace Industries)가 주축이 되어 전투기 생산과 개량을 진행해왔으며, 국산 전투기 개발에 관심을 갖고 우리나라와 KFX 공동 개발에 대해 논의하는 부분도 닮았다. 이렇게 현재까지 구축된 전력구조를 들여다보자면 적잖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나, 전체적인 전력을 평가하자면 터키공군이 한 수 위인 것으로 평가된다. 왜 그럴까?

1) Peace Bridge 사업분 40대, KFP 1,2차분 140대 포함 180대.



01. 터키공군의 F-5A 전투기. 최근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었던 사출좌석에 대한 개량이 실시되었음은 물론 기골보강과 항전장비 개량을 통해 현대전에 운용 가능한 수준으로 변모시켰다. 02. 터키공군이 인도 받은 E-737 AEW&C. 터키의 조기경보기 사업은 최초 소요제기부터 몇 차례나 사업이 연기된 우리나라와 달리 의사결정부터 도입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03. 터키공군이 보유중인 KC-135R 공중급유기. 신규기체는 아니지만 터키는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공중급유기 확보를 통해 보유 전투기들의 작전 반경을 넓히는 데 크게 기여했다.

저비용 고효율의 전력 구축

2010년 현재 터키 공군의 보유 전술기는 약 420여 대로 주력이자 다목적 전투기로 F-16C/D 213대, 중심타격기로 F-4E 126대, 보조 전력으로 F-5A/B 87대 등의 전투기 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원 전력으로 B737 조기경보기와 KC-135 공중급유기 7대 등을 운용하고 있어 일부 지원기 전력을 제외하면 우리 공군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다만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터키 역시 육군 중심의 국가로서 공군의 규모나 예산이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니었다. 예산 압박이라는 현실에서 터키 공군이 찾아낸 묘수는 바로 기체 개량이었다. 터키는 1983년부터 단계적으로 F-16을 대량으로 도입하였는데, 도입 시기가 우리보다 빨랐던 만큼 도입했던 기종들도 우리 공군이 도입한 KF-16보다 다목적 성능이 떨어지는 구형이었다. 그러나 90년대 말부터 이 중 117대에 대한 CCIP²⁾ 사업을 실시하여 레이더와 전자장비 등을 일신함으로써 공대공·공대지 능력에서 KF-16보다 월등한 성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개량에 들어간 비용은 대당 약 1,000만 달러 수준으로 터키 공군은 불과 11억 달러 가량의 예산을 들여 우리의 F-15K에 준하는 강력한 다목적 전투기 117대를 보유하게 되었다.

주력 기체인 F-16뿐만 아니라 보조 전력으로 운용되는 F-4E와 F-5A/B에 대한 개량도 함께 이루어졌다. F-4E에는 이스라엘제 개량 키트를 도입하여 수명연장 효과와 함께 전반적인 작전 성능이 크게 향상된 F-4E Terminator 2000을 만들어냈고, F-5A/B는 자체 개량 사업을 통해 기골을 보강하고 신형 항법/항공전자 장비를 도입하여 현대전 환경에서도 제한적인 방공작전과 공대지 임무 수행이 가능토록 개량해냈다.

이에 더해 일찍부터 조기경보기와 공중급유기 등 지원기 전력을 확보하여 가용 전력의 극대화를 추진했다. 80년대말부터 공중급유기 운용을 통해 자국의 주력 F-16의 작전반경을 크게 향상시켰고, 조기경보기 도입에 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자마자 신속하게 계약을 추진하여 우리보다 앞서 조기경보기를 확보하

2) CCIP(Common Configuration Implementation Program : 공통 형상 수행계획) : 수명연장을 포함한 부품 교체 등을 통해 기체 성능을 대폭 향상시키는 개량 사업. CCIP가 적용된 터키 공군 F-16은 레이더 및 임무 컴퓨터 교체, 기골보강 등을 통해 KF-16에 비해 레이더 탐지거리는 30%, 표적 처리속도는 5배 향상되었으며, 청밀 지상 탐색 능력을 부여 받아 우리 공군 F-15K에서 운용중인 SLAM-ER 중거리 공대지 미사일 운용과 함께 적 방공방 제압 작전도 가능해짐.

여 비용 대 효과 측면에서 매우 우수한 구조의 전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러한 전력기반 하에 터키는 JSF 프로그램에 Level-3 회원국으로 참여하여 2015년 이후부터 약 100여 대 규모의 F-35A 전투기 획득을 계획하고 있다. 출발은 비슷했으나 10년 후 우리가 140여 대 남짓한 소폭 개량 KF-16과 60대 수준의 F-15와 3차 FX 정도의 전력에 머무르고 있을 때 터키는 200여 대의 개량형 F-16과 100여 대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구성된 막강한 전력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위기의 공군력, 사과의 전환과 국민적 관심 시급해

지난 6개월간 <Global AF> 지면을 통해 간략하나마 각국 공군력에 대한 소개와 함께 현대 우리 공군이 직면한 위기와 이를 헤쳐 나가기 위해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이들 국가들의 교훈에 대해 살펴보았다. 작금의 최우선 과제는 심각한 노후화가 진행 중인 전투기 전력을 대체할 신형 전투기 도입을 통해 급증하는 주변국의 공중 위협에 대비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연재를 통해 살펴본 각국 공군의 사례는 전력증강은 반드시 신규제작 항공기 도입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비용 대 효과 측면에서 우

수한 전력증강 사례들도 여럿 보여주었다. 물론 기존 기체 개량 사업만으로 현재 직면한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당장 Pre-ATO³⁾만 보아도 유사시 공군에게 맡겨진 임무 수행을 위해 적정 수준의 성능을 가진 전투기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최선의 대안은 공군 전투기 전력 공백 위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신형 전투기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다. 다만 경제 회복에 우선한 현 정부의 예산 배분 기조 하에서 전투기 신규 도입을 통한 전력 증강이 어렵다면 비교적 적은 예산이 들어가는 개량 사업이나 중고 전투기 개량 후 도입 등의 방법을 통해 효과적으로 전력증강을 꾀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누차 강조한 것처럼 가장 현명한 해법은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해 필요한 만큼의 전투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금의 위기의식을 국민들과 공유하고, 공군 예산 증액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야만 한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국민과 함께 위기를 풀어나가는 공군의 슬기로운 모습을 기대해본다. **AF**



04. CCIP 개량이 적용된 F-16 전투기. 터키는 이 개량을 통해 초기형 F-16에 AIM-120 운용 능력을 부여함과 동시에 공대지 작전능력도 크게 향상시켰다.

3) Pre-ATO(Prepositioned Air Tasking Order : 기계화 공중임무명령서) : 각각의 전투기 자산의 전시 임무를 계획한 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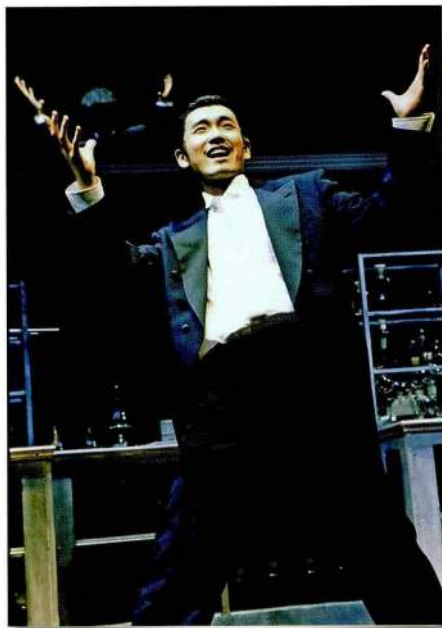


언제나 나를 최고라고 말해준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뮤지컬 <라디오 스타>

최곤은 '비와 당신'이란 노래로 88년도 가수 왕까지 올랐지만 이제는 대마초 흡연 전과자 정도로 취급 받는 잊혀진 스타. 아직도 자신이 스타라 믿고 있다. 사람을 때려놓고도 사과는커녕, 한 대 더 날려준 탓에 합의금만 불어난다. 매니저 민수는 합의금을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다 우여곡절 끝에 강원도 영월로 '유배'가듯 떠난다. 시골방송국에서 심사가 편할리 없는 최곤은 대본이고 뭐고 막 나가기 시작한다. 그러던 어느 날, 배달 온 다방 레지 김양을 게스트로 등장시키는데, 김양의 사연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된다. 최곤의 인기는 나날이 치솟는다. 전국방송으로 확대된다는 소식과 함께, 최곤에게 대형 매니지먼트사에서 스카웃 제의가 들어온다.

'비와 당신', '넌 내게 반했어' 등 기존 뮤지컬 넘버들과 새로운 음악, 무대, 의상으로 더욱 업그레이드 된 볼거리를 선사할 이번 공연은 뮤지컬 '아이다', '맘마미아' 등의 김재성 연출, '드림걸즈', '싱글즈' 등의 박성민 무대 디자이너가 새롭게 합류했다. 영월을 가지 않아도, 그곳의 별을 만날 수 있는 뮤지컬, <라디오 스타>. 커진 무대만큼이나 감동도 두배가 됐다.

● 기간 : 2011년 1월 2일까지 ● 장소 : 서울 올림픽공원 우리금융아트홀 ● 가격 : VIP 9만 / R 8만 / S 7만 / A 6만원 ● 홈페이지 : <http://blog.naver.com/mradiost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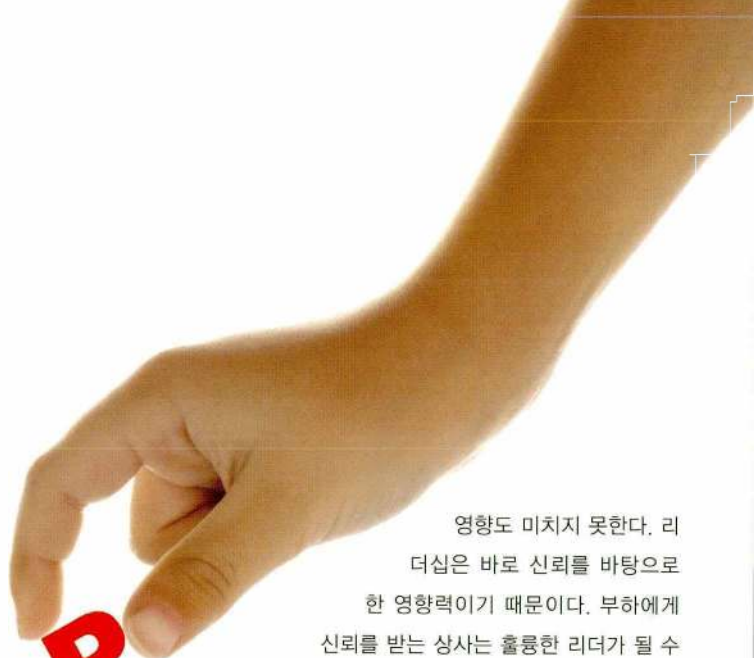


뮤지컬의 절대적인 신화, 뮤지컬 <지킬앤하이드>

울 겨울, 고백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지킬앤하이드의 객석은 어떨까. 만약 헤어져도 객석에서의 기억이 사람보다 오래갈 수 있는 뮤지컬이다. 그래서 다시 만나게 하고 싶은 뮤지컬 <지킬앤하이드>. 뮤지컬의 절대적인 신화라는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국내에서 지난 2004년 초연된 뮤지컬 <지킬앤하이드>는 매년 공연 때마다 신기록을 수립하며 지금까지 35만명의 관객을 동원한 베스트셀러이다. 특히 'Once upon a dream' 과 'This is the moment' 같은 감미로운 노래들이 국내 관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뮤지컬로도 손꼽히고 있다. 또 인간의 내면에 자리잡은 선과 악을 섬세하게 표현한 드라마에 지킬과 엠마, 루시의 로맨스가 더해져 '브로드웨이 뮤지컬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스릴러'라는 극찬을 받고 있다. 특히 조승우가 군대에서 제대하자마자 컴백작으로 선택해 더욱 기대되는 작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 기간 : 오픈런 ● 장소 : 서울 사롯데씨어터 ● 가격 : VIP 13만 / R 11만 / S 7만 / A 5만원 ● 홈페이지 : www.jekyllnhyde.co.kr



LEADERSHIP

신뢰받는 리더의 조건

리더란 어떤 사람일까? 리더는 자신이 먼저 신뢰받는 사람이 된 다음, 상대방의 잠재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주고 직원들이 시너지를 내서 조직을 성공하게 하는 사람이다. 리더십에 관해 가지기 쉬운 오해가 있다. 우리는 흔히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생각한다. 지위를 얻으면 리더십은 저절로 따라온다고 믿는다. 그런데 지위는 높은데 셀프 리더십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금연빌딩인 회사 건물에서 직원들에게는 금연을 요구하면서 자신은 방에서 담배를 피운다. 회사의 규칙에 관해서도 직원들에게는 엄격하지만 스스로에게는 관대하다. 이럴 때 직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는가? 앞에서 듣는 척 하지만 돌아서면 '너나 잘해!' 라고 외친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 늦게 다니지 말라고 아내와 아이들에게는 호통을 치면서도 자신은 업무를 핑계로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간다. 아이들에게는 규칙을 지키라고 하면서 애들을 태운 채 자신은 신호를 위반한다. 시댁 식구들에게 잘하라고 큰소리치면서 처가 식구들은 등한시한다. 이런 가정의 큰소리를 앞에서는 모두 듣는 척하지만 돌아서면 역시 '너나 잘해!' 라고 말한다.

이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그들에게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리더십은 바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영향력이기 때문이다. 부하에게 신뢰를 받는 상사는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다. 수많은 부하들이 그를 믿고 따르기 때문이다. 배우자로부터 신뢰받는 사람은 존경을 받을 것이며 행복한 부부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자녀들로부터 신뢰받는 부모는 아이들이 모든 것을 터놓고 얘기하기 때문에 원만한 대화를 통해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뢰받는 리더가 되려면 먼저 셀프리더십을 갖춰야 한다.

리더십에 대한 또 하나의 오해는 인기와 신뢰를 혼동하는 것이다. 가끔 조직에서 인기있는 임직원이 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들을 본다. 어떤 임직원들은 인기를 얻기 위해 노래와 춤, 농담과 운동에 능하기 위해 시간을 쏟아 부는다. 폭탄주를 잘 마시거나 잡기에 능한 동료들을 부러워하고 그렇게 되려고 애를 쓴다. 인기가 있으면 신뢰와 존경을 받는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기관리에 여념이 없는 임직원은 직원들로부터 일시적인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오래 가지 못한다. 이들은 비판에 너무 민감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 이를 수용해 발전하기보다는 적대시하거나 편을 가른다. 비록 당시에는 인기가 없었지만 장기적으로 옳은 결정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인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신뢰받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결국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항목은 신뢰이다. 신뢰가 이처럼 중요한 이유는 신뢰는 '원칙'이기 때문이다. 원칙은 모든 인간관계와 인간조직에 적용되는 우주의 법칙이자 자연법칙, 즉 순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이 적용되는 불변의 법칙이다. 예를 들어 GE의 잭 웰치 전 회장은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실시했던 개혁 초기에 인기는 형편없었지만, 주주들이나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결국 직원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다.

인기와 신뢰 사이에서 잘못된 선택을 한 사례는 한 나라를 이끄는 정치 지도자들에게서 잘 살펴볼 수 있다. 히틀러는 인기몰이와 대중선동의 달인이었지만 원칙을 어긴 신뢰받지 못할 행동으로 결국 실패했다. 반면에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존경 받는 대통령으로 꼽히는 링컨은 남북전쟁으로 악화된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지층의 반대를 무릅쓰고 노예를 해방시키는 소신 있는 행동으로 국민의 마음속에 신뢰를 심어 주었다.

마찬가지로 조직에서 리더가 되어 동료들과 부하들을 잘 이끌기 위한 조건은 스스로 신뢰성을 갖추고 신뢰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주변에서 스

스로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서 지위를 남용하거나, 왜곡된 인기를 추구하면서 신뢰라는 중요한 원칙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많이 본다. 이런 리더는 결코 신뢰받는 리더, 성공하는 리더가 될 수 없다. 지위와 인기에 연연하지 말고 신뢰받는 리더가 가져야 할 성품과 역량을 갈고 닦을 때 성공하는 리더가 될 수 있다.

〈신뢰의 속도〉의 저자인 스티븐 M. R. 코비는 전문가로서 개인적 경험과 다른 조직들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통해 신뢰의 문제에 접근했고 이러한 학습과정을 통해 전 세계 신뢰가 높은 리더들에게서 13가지 공통된 행동을 찾아낼 수 있었다.

이 13가지 행동은 항상 서로 균형을 이뤄야 한다. 예를 들면 솔직하게 말

하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과 균형을 이뤄야 한다. 어떤 행동이든 심하게 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영향력은 리더의 역할과 책임에 따라 달라진다. 하지만 신뢰의 출발점, 즉 자기신뢰와 관계의 신뢰에 대한 특별한 영향력은 어떤 역할을 맡고 있든 달라지지 않는다. 자기신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 다시 말해서 스스로 목표를 정해서 달성하고, 약속을 지키고, 자신의 말을 실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말한다. **A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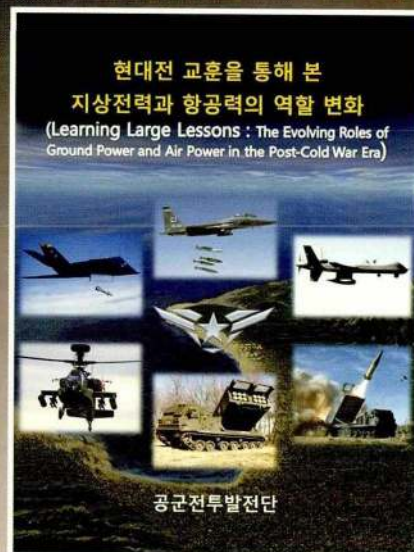
신뢰받는 리더의 조건

1. 솔직하게 말하라
2. 상대방을 존중하라
3. 투명하게 행동하라
4. 잘못은 즉시 시정하라
5. 신의를 보여라
6. 성과를 내라
7. 끊임없이 개선하라

8. 현실을 대면하라
9. 기대하는 바를 분명히 하라
10. 책임있게 행동하라
11. 먼저 경청하라
12. 약속을 지켜라
13. 먼저 신뢰하라



학습한 교훈과 그렇지 못한 교훈



냉전 후 작전들을 분석한 본 보고서는 전쟁수행에 있어 지상전력과 항공력의 상대적 역할이 변화해 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라크전 등 다섯차례의 전쟁에서 모두 항공력의 효율성이 향상되었다는 점을 보여주었으며, 본 사례들은 육군 장교들이 이러한 점을 점차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육군 장교들은 항공력의 전투수행 효과가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군교리는 이와 같은 새로운 현실을 반영하여 개정되지 않고 있다.

합동교리의 부적합성

이라크 자유 작전 직후 합동교리에도 일련의 변화가 발생하였다. 합동교리 개정판에 따르면 “합동군사령관은 합동전역을 통해 전략 및 작전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군사력과 역량을 통합하고 일체화시킨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작전 및 전역에서 육군은 합동작전을 실행하면서도 기타군의 역할은 육군을 지원하고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육군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만 운용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적의 항공기와 함대를 소탕하는 역할은 육군이 아닌 기타군들이 수행한다. 육군은 기타군의 지원이 없다면 결코 적군에 근접하여 이들을 격퇴할 수 없는 것이다. 육군 장교들은 공군이 전장을 적절히 조성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중심작전을 수행할 때 육군의 조직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 육군은 과거의 경험들을 통해 공군이 적시적소에 운용되지 못할 것이므로 육군이 중심전투를 수행하는 조직적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는 문화적 인식을 형성해 왔다.

중심작전을 다루는 육군개념의 문제점

중심작전 개념에서도 육군은 공군과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육군교리가 정의한 중심지역은 적군이 근접지역에 등장하거나 침입하기 전에 사령관들이 방어하는 영역으로서 근접지역의 전방에 위치하고 있다. 대개 중심지역은 예비부대가 주둔한 전방전투지경선으로부터 통제제대가 주둔한 전방전투지경선까지 이른다. 따라서 중심지역은 지리적 측면뿐 아니라 목적 및 시간적으로도 근접한 지역과 연관된 공간이다. 육군은 기관포와 다연장 로켓 체계하에 간접화력체계가 포괄하는 40km 이상의 작전지역표적을 공격하는 두 가지 근본 체계를 보유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육군전술미사일체계이고 두 번째는 AH-64로 대표되는 공격헬리콥터이다. 모든 육군전술미사일체계는 100마일 이상의 사정거리를 보유한다. 그러나 육군전술미사일체계는 중심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항공력과 비교해 보았을 때 한 가지 약점을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비행 중 표적을 재설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AH-64는 탑재체계, 속도, 그리고 생존성 등의 취약성으로 중심지역작전을 적절히 지원하는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확장된 작전환경을 포괄하고 불리한 작전조건 하에 정밀성을 갖추어 운용되는 고정익 항공기의 능력은 공격헬리콥터와 같은 회전익 항공기보다 훨씬 우월한 것이다.

미래 공군개념의 발전방향

공군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 독립적인 항공력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결정적인 요소라는 점을 입증해 왔다. 1991년 걸프전 당시 항공전역은 사막의 폭풍작전이 시작될 때 동시에 진행되었고 제공, 대공제압, 전략 공격, 그리고 항공차단임무를 병행하였다. 전략 공격은 적의 리더십, 분쟁을 지속시키는 자원, 그리고 전략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국가안보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공세임무이다. 또한 전략 공격은 적이 우리의 취약점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하여 그들의 전쟁목표를 좌절시키는 데도 활용되며 효과중심작전 개념에 결부되어 그 의미가 확장될 수 있다. 효과란 특정한 임무들을 수행한 후 발생하는 성과, 사건, 또는 결과를 지칭하며 이것을 목표로 한 군사 및 정치적 성과를 일컫는 데 기여해야 한다. 이는 목표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특정 효과를 추구하기 위해 개발된 효과중심작전(EBO)의 핵심 요건이다.

전쟁수행의 미래

지상 전력과 항공력의 상대적 역할을 둘러싼 지상 전력과 항공력 간의 논쟁은 1918년부터 현재까지 지속되어 왔으며, 지상 전력과 항공력 간의 논쟁은 위의 사안들이 해결될 때까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향후 합동전구에서 육군과 항공력의 근본역할은 다음과 같이 수정될 것이다.

● 육군의 역할

- 작전 및 전략적 수준에서 적의 집결 및 이동 방식을 강제하여 우군의 공중 공격에 노출시킨다.
- 적의 전술적 잔존요소에 근접하여 이들을 격퇴하고 성과를 달성하며 지상 영역을 점유한다.
- 전략적인 정치적 최종상태를 달성할 때까지 분쟁 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참여한다.

● 항공력의 역할

- 작전 및 전술적 수준에서 전구를 조성한다.

- 지상전투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근접항공지원, 정보, 감시 및 정찰(ISR), 그리고 공수 능력을 제공한다.
- 전구를 확보하고 안정화시키는 지상군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근접항공지원, 정보, 감시 및 정찰(ISR), 그리고 공수능력을 제공한다.

맺음말

현재 한반도는 전시 작전통제권 이전, 북한 핵문제, 천안함 사태 등 안보관련 주요정세가 급박하면서도 심각하게 변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고 신뢰성 있는 군사대비태세가 요구되고 있는 시기이다. 이러한 시기에 적의 도발 시 확전을 방지하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보다 실질적인 합동성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걸프전 이후의 많은 전쟁을 고찰해 보면 현대의 전쟁은 군사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공·지·해 합동작전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사력의 효율적인 운용 즉, 육·공군 간 '상호의존성' 또는 '상호보완성' 차원에서 '합동성 강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Learning Large Lessons : The Evolving Roles of Ground Power and Air Power in the Post-Cold War Era」를 번역, 발간하게 되었다. 이 책자가 '천안함 사태' 이후, 합동성 강화 및 작전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효율 다기능 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각 군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정립하는 데 객관적인 자료로서 활용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며, 항공 우주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는 데도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AF**

[Alert 주말대기 현장취재]

동북아 최강 F-15K Slam Eagle을 찾아가다!

**“적들이 또다시 도발한다면
결코 그냥 돌아오지 않겠다”**



지난 11월 23일 오후 2시 34분...

믿기 힘든 상황이 발생했다. 북한군은 서해 연평도에 수십 발의 해안포와 곡사포 공격을 소나기처럼 퍼부었다. 천안함 폭침사태 이후 불과 8개월 만에, 휴전이후 최초로 대한민국 영토를 직접 포격해 군인뿐 아니라 민간인까지도 살상한 것이다. 국제사회는 경악하였고, 우리 군은 즉시 전군대비태세를 갖추었으며, 특히 서해 5도에는 최고의 경계태세로 모든 작전병력이 전투태세를 갖추는 '진돗개 하나'를 발령했다.

상황 발생과 동시에 출격한 동북아 최강 F-15K와 KF-16은 서해 상공을 초계비행하며 대한민국 영공을 지켰다. 그 당시 출동했던 F-15K 조종사가 대기 중인 Alert를 찾아갔다. 현장에 직접 출격한 조종사와 최적의 출격을 위해 24시간 대기 중인 정비사 인터뷰를 통해 그 당시 현장 상황과 앞으로의 결연한 각오를 들어보았다.





박근형 소령

"TV에서 보도되는 내용을 보고 긴급 출동의 심적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스크램블 상황이 발생하였고 8분만에 이륙했습니다. 그 당시 서해 상공의 날씨는 평소보다 좋았습니다. 시계가 육안으로도 북한지역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2~3배의 집중력을 발휘하여 임무를 마치고 하번 근무자와 교대하였습니다. 또 다시 유사 상황이 발생하면 어떤 기종이 어떤 방법으로 위험하더라도 임무를 종결시키고 돌아오겠습니다."

고혁찬 대위

"당시는 ORE기간 동안에 훈련에 대비해 브리핑 중이었습니다. 소식을 접하고 모든 ORE 훈련 비행은 취소되었고 모두 출동대기 상태였습니다. 당시에는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이 충격적인 상황이라 모든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평소보다 긴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전 비행은 물론 스크램블과 동시에 몇 분 내로 출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해 상공은 북녘과 가까운 곳이라 면밀하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비록 비상출격 상황이었지만 전·후방석 조종사의 임무 숙지 및 상황에 대응하는 절차를 머릿속에 그리며 평정심을 잃지 않도록 마인드 컨트롤에 집중했습니다."



이현희 소령

"당시 ORE기간 중 야간 비행 브리핑을 마치고 비행 준비 중 전방 전투기 소환 명령을 받고 긴박한 상황임을 간파했습니다. 6·25전쟁 이후 북한은 비정규적으로 예상 밖의 상황을 자주 연출합니다. 강력한 대응을 통해 재발을 막는 것이 필요합니다. F-15K가 운용하는 정밀 유도 무기의 정확성은 이미 정평이 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목표물에 명중시킬 자신이 있습니다."



김익수 상사

"현재 11시간째 대기중입니다. 비상대기 상황이 발생한 후 정비 인력도 2.5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정비사의 아주 작은 실수라도 상공에서 작전을 펼치는 조종사에게는 큰 방해 요인이 됩니다. 조종사가 편하게 임무 할 수 있게 조그만한 실수없이 정비하는 것을 명예로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심적인 긴장도가 상승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임무완수를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속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우리 공군을 믿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비상대기실을 찾아간 날이 공교롭게도 불의의 일격에 전사한 해병대원 영결식이 엄수되었던 날이었다. 비상대기실을 지키고 있던 모든 조종사와 정비사들은 TV를 통해 영결식을 지켜보았고 희생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보여줬다. 그리고 다시 다짐하였다. 또 다시 이런 희생은 없을 것이라고... 앞으로 적의 추가 도발이 있을시 강력히 응징하겠다고 말이다. **A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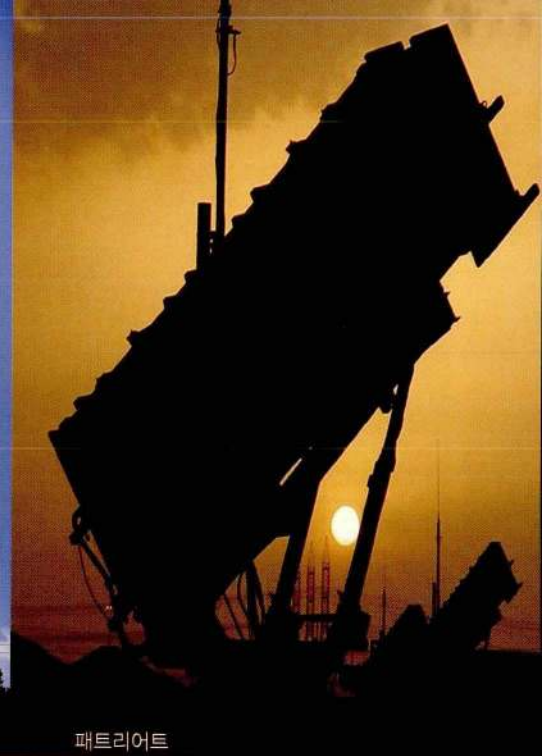




호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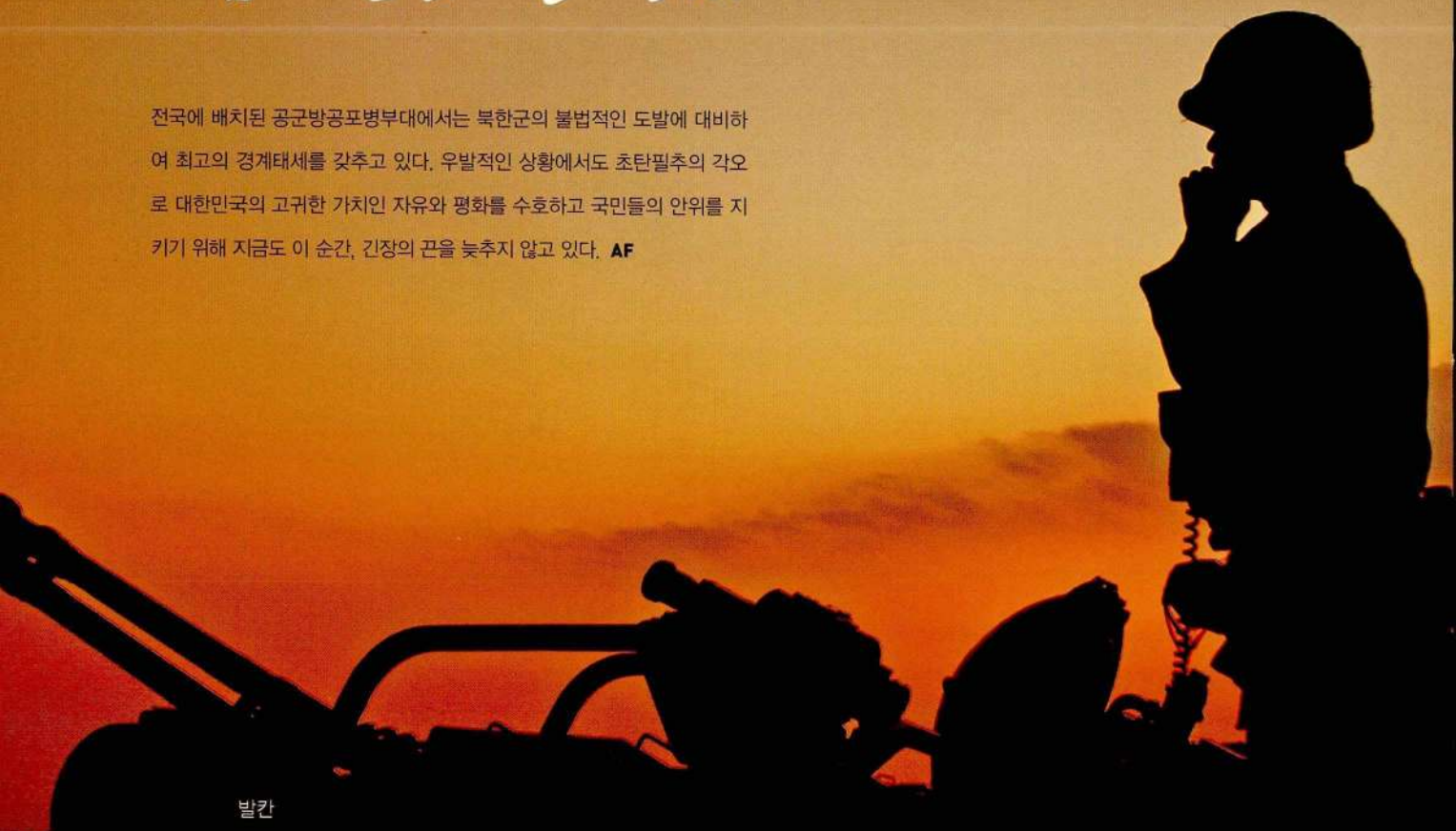
나이키



패트리엇

지금 이 순간 지상에서!!!

전국에 배치된 공군방공포병부대에서는 북한군의 불법적인 도발에 대비하여 최고의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다. 우발적인 상황에서도 초탄필추의 각오로 대한민국의 귀중한 가치인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고 국민들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지금도 이 순간,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 **AF**



발칸



인생이 허기질 때 바다로 가라

공군의 복무기간도 그간 꾸준히 단축되어 왔습니다만 육군보다 3개월이 더 긴 상태는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외출 외박이 육군에 비해 많고 근무환경도 상대적으로 좋다는 장점 때문에 공군 모병은 문제가 없었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지원율이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30개월 넘게 복무할 때의 3개월과 24개월 근무할 때의 3개월은 그 체감정도가 다르기 때문이겠지요. 군 복무기간과 비교하기는 좀 안어울립니다만 인간의 수명도 그간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경로당에서도 최소한 80세는 넘어야 노인 대우를 받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장수하는 분들이 많습디만 인류의 수명이 이렇게 늘어난 것은 최근의 일이라고 합니다. 조선시대만 해도 평균수명이 40세 남짓했답니다. 과거 환갑잔치를 성대하게 한 이유도 60세를 넘기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그랬다고 하더군요.

가끔 사극을 시청하다 보면 임금에게 밋보인 신하를 멀리 귀양 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소가 아주 외진 산골이나 섬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이야 그 유배지들이 모두 수려한 풍광을 자랑하는 관광지로 각광받습니다만 그 옛날 중앙무대에서 배제되고 임금에게 버림받은 정치인들은 그곳에서 외로움과 자괴감에 휩싸여 자포자기의 삶을 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주변의 풍광이나 자연환경은 그저 자신을 고립시키는 장애물들로 인식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조선시대의 이름 있는 정객 중 유배생활을 해 본 인물들이 적지 않아 보이지만 정약용 집안의 형제들은 거의 모두가 정치적 환난을 겪습니다. 신유박해 때 정약용의 셋째 형 약종은 참수형을 당하고 둘째형 약전과 자신은 흑산도와 강진으로 유배됩니다. 약용은 18년, 약전은 16년(그는 결국 흑산도에서 사망)이라는 기간을 유배지에서 보냈습니다. 평균수명이 80~90세에 이르는 지금도 이 기간은 짧지 않은 기간인데 평균수명이 40세 남짓하던 때에 이 기간은 참수

형보다 가혹한 형벌이 아니었을까 싶군요. 그런데 이 두 분 모두 당대의 대 학자라서 그런지 유배생활의 빈궁함과 무료함을 저술활동을 통해 극복해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산 정약용이 이 시기에 저술한 목민심서를 비롯한 수십 권의 저서는 학창시절 국사시간에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의 형 정약전의 자산어보는 아주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산어보는 정약전이 유배되었던 흑산도의 바닷고기와 해조류 등을 정리해서 소개한 어류도감이라 하겠습니다. 그때와 지금의 바다환경을 유일하게 비교할 수 있는 이 책은 그래서 학술적 가치가 아주 높다고 합니다. 또한 1차 산업 종사자들을 경시했던 당시의 시대적 정서에서 양반인 정약전이 상민들과 함께 저술 작업을 했다는 것에서 실학과 천주교사상이 그에게 끼친 만민 평등의식까지 엿보게 됩니다. 소설가 한창훈이 쓴 '인생이 허기질 때 바다로 가라'는 내 밥상 위의 자산어보라는 부제가 달려있습니다. 거문도가 고향인 그가 40대 후반에 육지생활을 정리하고 그의 영육을 키워준 고향으로 내려가 집필한 21세기판 자산어보입니다. 적당히 배합된 반백의 머리칼과 허연 수염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한창훈은 얼핏 보아도 바다사람으로 보입니다. 자신을 생계형 낚시꾼으로 소개하는 것으로 보아 그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육지에서 얻은 물질적 잉여물까지도 그대로 물에 놓아두고 귀향한 것 같습니다. 마치 정약전이 모든 권력과 재물을 놓고 흑산도로 귀양 갈 때와 비슷한 모습처럼 말이지요. 정약전의 자산어보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그 책에 언급된 다양한 어류를 직접 낚고 사진 찍고 고증을 들어가면서 재해석해 낸 이 책은 땅과 함께 바다 역시 인간을 키워내는 모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매 편마다 그 생선에 얹힌 자신의 인생이야기와 함께 체험에서 얻어낸 고기 잡는 방법들을 읽다 보면 만사 제치고 남쪽 바다로 달려가 바다향 가득한 회 한 점 물고 싶어지는 마음이 간절해질 겁니다. **AF**



11전비 24시간 작전수행현장 순시

참모총장은 12월 1일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공중도발 등 적의 추가도발에 대비하여 24시간 비상대기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11전투비행단을 불시 방문하고 현장의 작전수행여건을 직접 점검했다.

비상대기실(ALERT)을 방문한 참모총장은 전 부대원들에게 “북한군이 해상 및 지상 도발을 감행한 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의 공중도발 등 추가 도발시 강력한 대응 지침에 따라 현장에서 작전을 종결토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합동성 강화 초빙강연 참석

참모총장은 11월 2일, 계룡대 대강당에서 한반도 선진화재단 박세일 이사장의 안보 강연에 참석했다. 이날 박 이사장은 「21세기 대한민국의 꿈」이라는 제목의 3군 합동성 강화 아카데미에서 “산업화와 민주화에 이어 이제는 국가적 과제인 선진화를 이루어야 하며,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로 나아가자”면서, 이를 위해 “우리 군이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선진화와 통일에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비행지휘관 안전 대토론회

참모총장은 11월 16일 작전사령부에서 비행사고 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비행지휘관 안전 대토론회’를 주관했다. 참모총장은 이날 “이번 RF-4C 사고를 비행사고 근절을 위한 계기로 삼아 식별된 도출과제를 강력한 의지로 실천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합심 노력하자”며, “환골탈태한다는 각오로 각급 지휘관들이 현장중심의 안전관리를 통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항공우주법 세미나

참모총장은 11월 23일 「안보환경 변화와 항공우주력 건설을 위한 법적 쟁점」을 주제로 열린 ‘2010 항공우주법 세미나’에 참석했다.

참모총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첨단기술과 함께 성장하는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법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항공작전 및 우주개발에 관한 법체계 전반을 심도있게 연구하여 공군 발전은 물론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IR FORCE MONTHLY

2010. 12. NEWS



Let's Fly Together!

지난 11월 10일, 대한민국 공군 38전투비행전대와
미 공군 8전투비행단 소속 전투조종사들이 한 편조를 이뤄
새만금 방조제 상공을 가로지르며 한·미 우정비행을 실시하였다.
이번 우정비행은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G-20 회의를 위해
입국하는 기간 중 실시되어 굳건한 한·미 동맹을 확인했다.

제38전대 정훈공보실



연합작전 영어소통 이상무!

16전비, 공군 최초로 '어학 우수자원 통·번역 교육' 시행

제16전투비행단은 지난 11월 10일부터 4일간, 공군 최초로 비행단 자체 우수자원 통·번역 교육을 시행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부사관 및 병사 중 어학우수 자원을 선발하여 전문적인 군사 용어 사용이 주를 이루는 공군 통·번역 업무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교육 훈련은 참가자의 언어능력뿐만 아니라, 실제적 통역 업무에 필요한 고도의 집중력과 암기력 향상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되었다. 또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단계별 심화교육도 시행하였다. 계급·편제 등에 관한 용어 교육, 미군문화학습, 영한통역, 한영통역, 실제 통역의 뉘앙스 연습, 미군과 16비의 연합작전 교육 등의 순으로 체계적인 기량향상을 도모하여 연합 대비태세를 강화하였다. 제16전비 정훈공보실

항공기·조종사 생존성 보장

1전비, T-50 고등훈련기 제독훈련

제1전투비행단은 지난 11월 5일 T-50 고등훈련기 제독훈련을 실시했다. 작전사령부가 주관하는 작전지휘태세 종합검열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훈련에는 항공기 제독요원, 의무요원, 소방요원 등이 참가해 환상의 호흡을 선보였다. 훈련은 아군 T-50 항공기가 적 화학탄의 공격을 받아 기지로 귀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먼저 현장으로 출동한 제독요원들은 조종석으로 공기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캐노피를 비롯해 작은 틈새까지 전용 테이프로 밀봉했다. 이어 휴대용 화학탐지기와 KM9 탐지지를 이용해 화학탄의 종류를 식별하고 신속히 제독작전을 벌이며 항공기와 조종사의 생존성을 높였다. 제1전비 정훈공보실



폭발물 안전 처리 이상무

20전비 무인 폭발물 처리 로봇 '안드로스' 시현

제20전투비행단은 11월 9일 무인 폭발물 처리 로봇의 기능 시현을 선보였다. 이날 공개된 '안드로스'는 폭발물에 접근해 집게손으로 폭발물을 들어 안전지대로 이동한 뒤 로봇에 장착된 고압 물포총을 이용하여 전원 공급장치를 파쇄하였다. 이 로봇은 유·무선 조작으로 원격정찰, 안전조치 및 폭발물 처리 등 위험한 폭발환경에서 EOD 요원의 능력을 보완하고 요원이 직접 활동하기 힘든 유해한 환경에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20전비 정훈공보실



공군본부 도서관, Digital 북카페로 새단장!

장병 독서문화 장려 및 병영 문화공간 조성 위해 리모델링 실시



공군은 장병들의 정서함양과 병영내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공군본부 병영도서관의 리모델링 및 디지털 전자도서관 구축을 완료하고 11월 8일 도서관 개관 20주년 행사를 실시하였다.

병영 도서관은 노후화된 도서관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난 7

월부터 리모델링 작업을 실시했다. 먼저 출입문은 개폐시 소음이 나지 않으면서 내부 환경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개방형 유리출입문으로 교체하고 도서관 현판도 조명이 달린 등(燈) 현판으로 교체했다. 가독률 향상을 위해 천정조명도 밝고 환한 조명으로 교체했으며 바닥타일 교체 및 아트월 조성, 그리고 스테레오 오디오 등을 도입해 편안하고 안락한 독서공간으로 탈바꿈하였다.

또한 전자도서관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주) 북코스모스와 계약을 맺고 공군 인트라넷망을 통한 전자도서관을 구축하였고 이에 따라 도서관을 찾는 장병들이 내부망을 통해 도서 조회 및 간행물 열람이 가능하게 했다. 공군본부 공보과

다둥이 소위 아빠, 힘들지만 행복해요!

공군내 유일한 4자녀 소위 아빠, 신장병 투병 이겨내고 재입대한 사연 화제

지난 1월에 입관한 후 방공포병 특기교육을 받고 1여단 예하 8622부대 패트리엇 유도탄 발사반장으로 보임한 이원세 소위의 가족은 아들 둘에 딸 둘, 그리고 아내까지 총 6명이다. 이 소위는 지난 '09년 초 사관후보생 1차 합격자 발표 소식을 접함과 동시에 낯선 아이의 임신사실을 알게 되었고 '10년 1월 공군 소위로 임관, 올해 2월에 네 아이의 아빠가 되었다.

2000년 공군 하사로 입관해 4년 동안 군 복무를 했던 이 소위는 24살인 2003년 결혼해 첫 아들을 얻었지만 신장병이 발병해 불가피하게 전역하게 되었다. 이후 학생이자 가장으로 생활고를 겪으며 어려운 생활을 했지만 중도에 포기했던 군인으로서의 삶을 생각하게 되었고 만 30세에 마지막 입대기회를 얻어 제 123기 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게 되었다. 특히 복무 당시 신장병 치료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공군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따뜻한 전우애가 늦은 나이에 재입대를 결심하는데 큰 요소로 작용했다고 한다.

이 소위는 현재 공군 1여단 8622부대에 배속 받은 후 가족과 함께 부대 관사로 이사해



함께 생활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이 소위는 "제 자신과 아내가 모두 아이를 좋아하고 식구들이 많은 행복한 가족을 꾸리는 것이 소원이라 여건이 허락한다면 더 많은 자녀를 가질 계획"이라고 말하며 "앞으로 대한민국 공군장교로서 영공방위 임무에 매진하며 투병 중이던 자신을 선택해 준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제1여단 정훈공보실

작사 · 15호비 · 국군의무사 항공의무후송훈련 실시

전시, 육로후송 불가 및 전방지역 응급환자 발생 상황 가정하 훈련



제15호성비행단은 11월 17일, 항공의무후송요원의 실무능력 숙달 및 전시 합동항공의무후송 능력을 위해 국군병원에 입원한 실제 환자 60여 명을 수송기 및 헬기로 후송하는 합동 항공 의무후송훈련을 실시했다. 공군 작전사령부 주관으로 실시된 이날 훈련은 전시 및 육로후송 불가 및 전방지역 응급환자 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국군수도병원과 양주병원의 실제 환자를 수송기와 헬기를 이용해 후방지역으로 이송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공군 및 의무사 의무요원과 실제 환자 등 인원 100여 명, 공군의 C-130 수송기, HH-32 헬기 등의 전력이 참가했다.

제15호비 정훈공보실



실전방불케 한 전투태세종합훈련 실시

17전비, 전시상황 가정 동시다발전 진행

"F-4E 편대 긴급 출격하라!" 11월 9일 오전 8시, 17전투비행단에 비상사이렌이 울렸다. 적 전투기 편대가 우리 영공 근처로 진입함에 따라 스크램블 명령이 떨어진 것이다. 순식간에 F-4E 콕핏 내부로 뛰어오른 비상대기실 조종사들은 정비사와 무장사들의 지원 속에 출동준비를 마치고 유도로를 따라 택싱한 뒤 이륙 지점에 섰다. 8대의 F-4E 팬텀 전투기는 엄청난 굉음을 내며 작전 구역으로 출동했다. 이렇게 시작된 17전비 전투태세훈련은 8일부터 11일까지 실시되었으며 비행단 단독 훈련 중 최대 규모이다. 훈련을 통해 장병들은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피해와 혼란을 최소화하고 항공기 최대출격과 작전능력을 유지함으로써 영공방위 임무수행에 필요한 최고의 전투태세를 갖췄다. 제17전비 정훈공보실

3훈비 215비행교육대대, 15만 시간 무사고 비행기록 시상식

11월 18일 3훈련비행단에서는 215비행교육대대가 기록한 15만 시간 무사고 비행기록 달성 시상식을 가졌다. 이번 215비행교육대대 15만 시간 무사고 비행기록 수립은 지난 10월 25일 215비행대장과 학생조종사가 조종한 KT-1항공기가 활주로에 안착함으로써 수립되었다.

이날 비행단장은 훈사에서 "비행경험이 채 1년도 되지 않은 학생조종사들과 함께 무려 2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무사고 비행기록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은, 전 세계에서라도 보기 드문 대 기록이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고, '기록은 달성하기보다도 지키기가 더 어렵다'는 말이 있듯, 무사고 비행안전의 전통을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결코 지금의 성과에 자만하거나 방심하지 말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변의 사고 취약요인을 구석구석까지 철저히 살피는 총화적 안전관리에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제3훈비 정훈공보실



8전비, '10년도 항공수송 지원능력 평가대회 개최

전·평시 병참공수 지원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2010 항공수송 지원능력 평가대회가 11월 3일 8전투비행단에서 열렸다. 군수사령부가 주관하고 올해로 18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에는 전국 공군기지 항공수송지원단 근무요원들이 참가해 경합을 벌였다.

대회는 전년도 최우수 부대인 8전비 요원들이 각종 장비를 이용한 항공기 엔진과 전시 육군의 의장화물에 대한 적·하역 시범으로 시작된 본 대회는 1개 조로 편성된 9명이 조장을 중심으로 팔레트 포장과 장비조작·유도를 담당하는 인원으로 나뉘어 4개 평가장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제한시간 내 임무를 완수하는 것은 물론 주어진 장비와 도구를 활용해 안전하게 화물을 항공기에 적재하는 일련의 과정을 항목별로 평가받았다.

제8전비 정훈공보실



Fighting Falcons

주방위군 요원들이 F-16 비행 훈련을 통해 국제 협력을 확립

162 비행단은 Tucson 국제공항 주변의 95 에이커를 차지하고 있다. 이 작은 땅에서 공군 주 방위군 조종 교관들은 F-16 Fighting Falcon의 가지각색의 변형을 운용하는 공군 조종사들을 훈련시킴으로써 조종사간 및 군(Military) 간의 관계를 다지고 있다.

1989년부터 F-16 국제 조종사들이 훈련시켜온 이 비행단의 목표는 미 공군 조종사 및 그들의 동맹군 조종사들이 합동 훈련을 통해 상호이해를 확립할 수 있도록 F-16 운용에 관한 지속적인 전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노련한 조종 교관을 고용하고 다른 공군 주 방위군이 20%의 풀타임인 것과 다르게 비행단은 95%의 인원이 풀타임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탐견 교관

비행단은 대학과 같은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162 전투비행단에 조종사들은 파견 보내는 국가는 비행시간, 생계비, 유류비 및 기타비용을 포함한 수업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들은 또한 유일무이한 어려서를 갖고 있는 교관들을 보유하고 있다.

Chuck Blank 중령이 달고 있는 무장 학교 마크는 그가 전문가라는 사실을 즉시 인지시켜 준다. 그는 공군 무장 학교 졸업생이면서 교관으로 있고 해군 Top gun 프로그램 교관이었다. Chuck Blank 중령은 “내가 아는 한

양쪽 프로그램 교관을 경험해본 사람은 내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그에 의하면 두 프로그램은 많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에서 얻은 경험을 그를 풍부한 경험을 갖춘 가지각색의 색을 띠는 조종사로 만들었고 그는 해외 조종사들을 가르칠 때 이 경험을 매일 적용한다. “무장 학교는 6개월 프로그램으로써 최고의 공군 조종사에게 무장체계에 관련된 최신 전술을 가르친다. Top gun 프로그램은 6주간의 교육 기간을 통해 해군 조종사들에게 전투기 조종사가 되는 법을 가르친다. 나는 Top gun 프로그램에서 F-18을 비행했고 무장 학교에서 F-16을 조종했다.”고 그가 말했다.

162 전투기 대대 작전부장인 Blank 중령은 교관이라는 직책이 잘 어울릴 뿐 아니라 특정 나라에 맞게 훈련 프로그램을 조정하는 책임이 있다. 그는 “각각 교육생들의 경험에 맞게 맞춰진 교육 계획을 받는다. 이들 중 몇 명은 기본 비행 교육만을 경험해 봤고 또 다른 몇 명은 미국에서 UPT까지 다녀왔으며 특수한 몇 명은 각종 전투기에서 수백 시간의 비행 경험을 갖고 있다. 따라서 모든 인원이 같은 교육 훈련을 받게 할 수 없고 각자의 요구 사항에 맞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Blank 중령만이 여러 기종을 운영해본 비행 교관은 아니다. 비행단 예하에 있는 3개 대대에는 해군 및 해병대 조종사 출신과 다른 탐견 및 공군 무장 학교 졸업생들도 있다. 이곳은 교관들만이 우수한 것은 아니다. 148전투비행대대는 아랍 에미리트 연합의 조종사들에게 현재까지 생산된 가장 우수한 F-16



아리조나 주 남부에서 162 전투비행단 소속의 F-16 Fighting Falcon이 훈련 중 Flare를 발사하고 있다. 162 전투비행단은 Tucson에 위치해 있고 국제 조종사들을 교육한다.

기종인 Block 60 F-16E/F Desert Eagle을 교육시킨다. 이 기종은 4.5세대 전투기로 불린다.

148 전투비행대대장이자 해병대 조종사 출신 Andrew Macdonald 중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외부는 유류 탱크를 제외하곤 기존 F-16 항공기로 보인다. 현재 미국은 Block 60 기종을 운용하지 않으므로 현재 우리는 14대의 UAE 항공기를 대여 받아 그들의 조종사들을 훈련시키는 독특한 관계를 맺고 있다.”

조종사들을 교육하는 것 외에도 비행단 F-16 정비요원들을 훈련시킨다. F-16E/F 기종을 정비하는 것에 관련해서는 철저히 격리된 상태로 운영된다. 162 항공기 정비대대 부대대장인 Kenneth Gavre 중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Block 60 기종을 정비하는 모든 장비는 UAE 소유로 되어 있다. 법률에 따라 우리는 다른 국가 공군 기종을 정비하는데 미국 장비를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UAE는 이 전투기를 정비하는 필요한 모든 도구를 제공한다.

교육생 지원

162 전투비행단에서 훈련을 받는 교육생들은 몇 가지 혜택이 주어진다. 폴란드 소령인 Pawel Marcinkowski의 경우 교관들과 직원들의 일관성은 그가 비행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그는 162 전투비행단 조종교관교육과정을 이수한 첫 폴란드 조종사이므로 집중력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는 Tucson에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 돌아가 갓 태어나 성장하는 F-16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폴란드의 교육생들을 가르쳐야 한다.

질은 폴란드 억양을 갖고 있는 Marcinkowski 소령은 “나는 여기 기본 훈련부터 받았다. 그때 있었던 사람들이 아직도 여기 있다. 그런 일관성이 내가 비행과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비행 자체는 Marcinkowski 소령에게 익숙한 경험이다. 그는 Mig-21과 TS-11 기종에서 수 백



1. 아리조나 주 Tucson에 위치해 있는 162 전투 비행단 소속 미군 F-16과 UAE F-16 항공기가 남부 아리조나 주에서 진행될 훈련 임무 전 비행 안전 점검을 받기 위해 활주로 끝에서 대기하고 있다.

2. 훈련 임무를 위해 Chuck Blank 중령 (왼쪽)과 Pawell Marcinkowski 소령이 자신들의 전투기로 걸어가고 있다. Blank 중령은 152 전투 비행대대 작전부장 겸 교관이고 Marcinkowski 소령은 폴란드 공군 조종사로써 조종 교관 교육을 받는 교육생이다. 졸업 후 Marcinkowski 소령은 폴란드로 돌아가 조종사들을 교육할 것이다.

시간 비행을 한 조종 교관이다. 그는 미국 조종 학사 과정에서 T-38 Talon 또한 조종한 경험이 있다. 그러나 이런 조종 경험을 갖고 있는 그라도 162 전비단의 교육 과정은 그에게 지속적인 도전 과제를 제공하고 언제나 F-16 전술만을 생각하도록 만든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언제나 비행만 생각하게 된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6일을 비행한다. 내가 내 가족들과 같이 있을 때만이 비행에 대한 생각을 잠시 접을 수 있다.”

이 비행단은 교육생들이 훈련을 받도록 선택된 시점부터 이 교육생들을 관리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한다. 이 모든 작업은 국제 군사 교육생 관리실에서 해결한다. IMSO 과장인 Donna Wolslagel 소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교육생의 관련 문제를 다루는 유일한 부서이다. 우리는 대학교의 학과 등록기관 또는 학생 관리 사무실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Wolslagel 소령은 IMSO가 각각의 다른 국가와 직접적으로 업무를 진행해 학생들이 바로 훈련을 진행할 수 있도록 문서, 교육계획 및 보급 관련 사항이 제대로 진행되는지를 확인한다고 말했다. “Marcinkowski 소령과 같이 다수의 교육생들이 자신의 가족을 동행한다. 우리는 그들의 자녀들이 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도와주고 교육생들이 미국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국무부의 해외 학생 프로그램 견학을 편성한다.”고 그녀가 말했다.

미 래

이 비행단은 언제나 변화하고 있다. 몇몇 국가는 필요시 교육생을 보내 교육을 받게 하고 UAE 같은 경우는 한 세대 전체와 계약을 해서 그들의 조종사들을 훈련시키게 한다. 이런 계약이 만료되거나 새로운 자리가 열리면 학생들의 작업량이 변한다.

162 전투비행단장인 Gregory Stroud 준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년은 UAE F-16이 이 단을 떠나고 네덜란드 인원들이 그 자리를 메우게 될 것이다. 그들은 예전에도 여기서 교육을 받았었고 이번에 돌아오면 전에 일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일관성이 이곳을 교육 받기 최고의 장소로 만드는 이유 중 하나다.”

이곳은 F-16 조종 교육에 관련해서 국제적으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고 F-35 Lightning II 기지 후보로 고려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새로운 기종이 교육 과정에 추가될 수도 있다. Stroud 준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우리가 타국 조종사들을 교육하는데 전문가라고 자부한다. F-35의 경우 다 국가 프로그램으로 시작했고 이 국가들은 자신들의 조종사들을 교육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비행단은 굉장히 적합한 환경을 갖고 있고 만약에 선택된다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F-16 공동체 또한 계속 성장하고 있고 우리는 이것에 관련된 교육도 책임감 있게 수행할 것이다. 신형 항공기이든 입증되고 다용도인 F-16 항공기이든 162 전투비행단의 공군인들은 지속적으로 전 세계에 전문성 있는 조종사들을 배출해 낼 것이다.” **AF**



아리조나 남부에서 훈련임무를 수행하던 중 162 전투비행단 소속인 미 공군 F-16과 UAE 소속 F-16기가 대열을 이루고 있다.

항공 독립운동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공군(3)

'밥술 2개'로 시작한 대한민국 공군

해방 이후 '대한민국 공군' 창군(1949년 10월 1일) 과정에서 눈여겨 볼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가지 있다. 첫째,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해방 이후 통합된 항공건설협회를 만들어 항공 인적 토대를 구축하여 공군 인력을 확보했다는 점이다. 최용덕, 이영무, 김진일, 김영재 등 중화민국 항공대 소속 항공인 20여 명, 국내 신용인, 김용수 등 비행학교에서 배출되고 활동하던 항공인들 40여 명, 김정렬, 이근석 등 일본군, 만주군 항공대에서 활동하던 항공인들 4백여 명 등이다. 이들은 조종, 정비, 무장, 통신 등 다양한 항공분야의 경험 많은 전문가들이었다.

둘째, 육·해군과 나란히 정립(鼎立)하는 독립된 '공군'의 필요성, 당위성, 중요성을 간파하고 이를 관철시켰다는 점이다. 정부 수립 후 국방부 차관으로 있던 최용덕 장군이 국군조직법에 관여하며 공군 독립에 후방지원을 했고, 김정렬 장군이 '항공의 경종'이라는 책을 써서 정관계 및 국민을 설득하는 등 항공인들의 노력이 지대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시기상조'를 주장한 미 군정청, '공지협동작전'을 내세워 공군 독립을 반대한 일부 육군 지도부의 입장을 극복할 수 있었다.

'작은 자존심'을 버리고 '더 큰 자존심'을 얻다

셋째, 중일전쟁을 수행한 관록의 항공 간부들의 겸허한 자세도 빼놓을 수 없다. 국민들과 항공인들의 염원을 담은 '공군'의 창설은 1948년 5월 5일 통위부(현, 국방부) 직할부대로 조선경비대 제1여단사령부(수색) 내에 항공부대로 시작되었다. 최용덕 장군 등 항공간부 7인이 미 군정청이 항공부대 창설의 조건으로 내세운, 조선경비대 보병학교에서 1개월간 '미군식 병사훈련'을 받았던 것은 유명한 일이다.

이순신 장군의 '백의종군'을 역설했던 최용덕 장군은 미 군정청의 조건에 분노했던 항공간부들을 설득하여 병사훈련을 받은 것은 '작은 자존심'을 버리고 '더 큰 자존심'을 얻기 위한 결단이었다. 비행기가 단 한 대도 없는 우리 항공대는 1948년 9월 수색에서 김포기지로 이전 독자적 활동을 시작하였다. 텅 빈 막사 8개에 밥술 2개가 전부였다.

선견지명과 유비무환을 실천한 항공인들

넷째, 오늘날 대한민국 공군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이렇게 장족의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항공대 창설 초기, 항공인들과 일부 지도자들의 육군에서 독립된 '공군'의 당위성과 중요성을 간파하고 비록 비행기는 없지만 전국에 흩어진 비행장들을 미리 확보한 선견지명이다.

항공부대는 1948년 9월 13일 미군으로부터 L-4기 10대로 인수받으면서 '항공기지부대'는 '육군항공사령부'로 명칭을 변경, 기구개편을 하였다. 1948년 12월 15일, '통위부'가 '국방부'로, '조선경비대'가 '육군'으로, '해상경비대'가 '해군'으로 편성되었다.



건국기 도입에 환호하는 국민들



공군 초대, 3대 참모총장 김정렬 중장



빨간 마후라

항공대는 아직 독립은 되지 않았지만, 김포, 여의도 기지 외에 수원 등 5개 비행장에 기지부대를 파견하고, 일본군이 건설했던 평택, 대전, 대구, 모슬포 등 10여 개 비행장을 더 확보하였다. 미래를 준비한 것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6·25전쟁이 일어난 후 연합군 항공대들이 신속하게 전개하여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국민들의 비행기 헌납운동

다섯째, 1948년 10월 L-5기 2대, 동년 12월 L-5기 8대 등 미군의 지원을 더 받고 1949년 10월 1일 대한민국 공군이 창군되었지만 전투기 한 대 없는 것은 커다란 아쉬움이었다. 공군은 중·일전쟁 당시 타이거부대(이후 미 제14공군 사령관)의 센놀트(Claire L. Chenalt) 장군까지 동원하며 미국을 설득했지만 전투기 지원은 실패하였다. 국민들은 단결했다. 돈을 걷어서 비행기를 구입했다. 전투기 구입은 실패했지만 1950년 5월 AT-6 연습기 10대를 캐나다에서 수입했다.

'비행기'와 '공군'을 중심으로 뭉친 민관군의 일심 단결한 눈물겨운 광경이다. 그 모습은 1950년 5월 14일, 항공기 명명식이 있었던 여의도기지에서 펼쳐졌다. 그 비행기들에게는 '건국기'로 명명하였다. 그러나 한 달 후, 결코 원하지 않던, 있어서는 안 될 전쟁이,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일어나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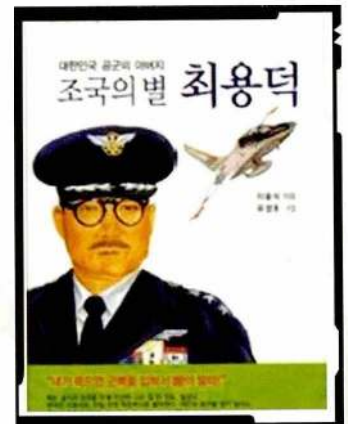
맺는 말, 우리나라 항공영화와 항공소설의 현주소

짧은 지면에, 해방 전 우리 항공역사와 공군창군역사를 스케치해보았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스케치에 담긴 항공인들의 고통과 노력과 헌신의 삶이다. 우리가 그들의 이름과 고난의 삶을 기억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또한 미래를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의 지표로 삼을 수도 있다.

그러한 항공인들의 삶을 국민들과 함께 공유해야 한다. 그런 '고리'로써 항공영화와 항공소설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첫 항공영화인 1948년 16밀리 필름으로 만들어진 '안창남 비행사(노필)'를 시작으로, 1954년 '출격명령(홍성기)', 1964년 '빨간 마후라(신상옥)', 1965년에는 '성난 독수리(김기)'가 있었고 41년이 지난 후 2006년에 '청연(윤종찬)', 2007년 이인수(전 KBS PD) 감독의 '창공으로'가 있다.

우리나라 항공소설로는 2000년 '항적(정호영)', 2003년 '창공의 투사(오세영)', 2007년 '권기욱 위인전(임복남)', 2008년 '히말라야의 별(이윤식)', 2009년 '최용덕 위인전(이윤식)', 2009년 'Return to Base(차인숙)', 2010년 'Airholic(권현숙)' 등이 있다.

길고 험난했던 우리의 항공역사에 비해, 이를 기억해주고 기념할 항공영화와 항공소설은 너무도 빈약하다. 앞으로 항공과 항공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활동을 기대하며 3회에 걸친 부족한 글을 마친다. **AF**



최용덕 장군 위인전

한 눈에 보는

6·25전쟁 60주년

2010년은 지난해 공군 창군 60주년에 이어 6·25전쟁 60주년을 맞이하는 해였다. 우리 민족 최대의 비극이지만 반세기만에 급격한 경제성장속에서 점점 잊혀지고 있는 전쟁이기도하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와 경제적인 번영은 6·25전쟁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내·외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당시 UN 60개 회원국 중 41개국(공군 참전 6개국)이 물심양면으로 우리를 지원하여 자유를 지켜낼 수 있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공군 6·25전쟁 60주년 사업단이 출범하여 지난 1년간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와 명예선양 및 전후세대의 호국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였다. **AF**



강 경 한 대령 / 공군 6·25전쟁 60주년 사업단 부단장

황에서 우리의 승전을 기념하는 공군작전재연행사를 통해 승호리철교 폭파 작전과 351고지 전투지원 작전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60년 전 강릉여고 학생이 지금은 백발의 할머니가 되어 그 당시 모습을 재연하는 장면은 감동스러웠습니다.



올해 실시한 행사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가 있다면?



여러 행사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는 지난 6월 공군사관학교에서 실시한 '영원한 빛' 제막식 행사였습니다. 공군을 하나로 모으는 통



작년 창군 60주년 행사팀장에 이어 올해 6·25전쟁 60주년 사업단 부단장으로 임무를 맡아 모든 행사를 성공적으로 끝냈습니다. 소감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행사를 1년 내에 기획하여 완료하였습니다. 행사를 통해서 공군의 역사를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어서 더욱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6·25전쟁에서 공군의 역할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상



합의 의미를 잘 살려 378명의 전사/순직 조종사들의 명패를 모셨습니다. 참석한 유가족들이 손수건으로 명패를 닦으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에서 코끝이 찡했습니다.



올해 행사를 준비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행사 때마다 6·25 참전용사들을 초청했지만 너무 연로하신 참전용사분들은 많이 참석하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행사에 참석하셔서 그날의 기억을 회상하셨으면 행사가 더 의미가 있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쉽게도 이제 곧 정든 군복을 벗고 명예로운 전역의 순간이 기억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약 33년간의 군 생활 동안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은?



회전의 조종사로서 14년 동안 VIP 조종사였고, 6전대 235비행대대를 거치는 등 여러 보직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8월, 유지비행을 통해 개인적으로 4,000시간 무사고 비행시간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전역을 앞두고 큰 선물을 받은 기분입니다.



앞으로 공군을 이끌어갈 후배들에게 선배로서 조언을 남긴다면?



공군인으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근면 성실하게 자신을 낮추며 일과 인생에 임한다면 그 속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공군작전행사

: 10월 26일~27일

6·25전쟁 중 한국공군의 주요 전투작전인 승호리철교 폭파, 351고지 전투지원 작전에 대한 전승을 기념하는 행사로 공군작전재연식, 호국음악회, 강릉 시

가행진, 기지공개행사가 실시되었다. 특히 당시 출격조종사와 시민(강릉여고)이 재회하여 그 당시 귀환을 축하하는 의미로 꽃다발을 목에 걸어주는 의식을 감동적으로 재연했다.

호주공군 참전기념 동판 제막식 : 4월 13일

한국전에 참전했던 호주공군 기념동판을 전쟁기념관에 설치하여 제막식을 가졌다. 6·25전쟁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전을 열었으며, 호주 유소년합창단의 공연이 이어졌고, 화보집을 제작하여 한·호 우의 및 동맹을 재확인하였다.

강릉 통일공원 공군 안보단지 조성 : 9월 15일

6·25전쟁 당시 최대출격 지역인 강릉에 공군 안보단지를 조성하고, 공군 주력기의 시대별 퇴역항공기 6대(F-4D, F-5A, F-86D, F-86F, T-33, T-37)를 전시하여 강릉지구 호국영령을 추모하였다. 안보단지는 박물관 형식으로 꾸며졌고 공군 홍보자료 전시 및 동영상 상영을 한다.



공군 참전 6개국 초청 행사

: 10월 13일~10월 17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희생한 공군 참전 6개국 용사와 유가족들을 초청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했다. 이를 통해 우방국과의 동맹을 재확인하였

고 사관생도 해외항법 시 공군 참전국을 방문하기로 하여 지속적인 관계유지에 초석을 다졌다.

1

2

공군 최초전투기 인수 및 출격 재연행사 : 7월 1일

F-51 전투기 최초 인수 및 출격의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고, 인수 주역이자 최초 출격 전사자인 故 이근석 장군을 추모하였다. 10대의 KT-1을 사용하여 F-51



을 인수하는 모습과 최초 출격을 재연하여 신세대 장병에게 6·25전쟁 당시 공군의 활약상과 참전 조종사의 희생을 기리는 계기가 되었다.

3

4

공중 전사/순직자 추모비 '영원한 빛' 건립 : 6월 15일

6·25전쟁 전사자의 명예선양과 넋을 기리며, 전후 순직 공중근무자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는 추모비 건립 및 제막 행사로 총 378명을 추념하였다. 특히 보라



매의 산실인 공군사관학교에 건립하여 생도들에게 정신적 지표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유가족들이 항상 참배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5

6

故 김영환 장군 문화훈장 수여식 : 8월 21일

6·25전쟁 중 세계 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 보존에 기여한 故 김영환 장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정부 금관 문화훈장 수여식에 참석하여 한국공군의 작전수행과 문화재 보존의식을 대내·외에 홍보하였다.

7



전후 전력증강과 한국공군의 성장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노력으로 창군과 6·25전쟁에서 임무를 완수한 한국공군은 현대전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국방전력으로 공군력을 증강시켜 전쟁을 방지하고 미래 항공우주시대를 대비하고자 하였다. 전후 60년 동안 수많은 공과(功過)에도 불구하고 2010년 현재 최강의 전쟁억제전력이자 효과적인 국방전력으로서 한국공군은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전투기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방공레이더기지 종합 준공식
[1968년 6월 13일]

전후 항공기념일의 시민궐기대회 장면,
한국공군에 제트기를 달라고
미국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낭독하고 있는 모습
[1953년 10월 1일]



공군확장 3개년 계획과 제트전투기 시대

6·25전쟁에서 한국공군은 단독작전을 시작한 1951년 10월 11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UN공군의 전투단위부대로서 항공작전을 전개하여 총 11,461명의 병력과 118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출격조종사 115명 가운데 39명이 100회 이상의 출격기록을 수립하였다. 또한, 1953년 2월 15일에 F-51전투기 40여 대를 포함하여 총 70여 대의 항공기를 보유한 제10전투비행단을 창설하고 휴전일까지 총 758회를 출격하였다.

전후 한국공군의 전력확보와 증강노력은 전쟁이 한참 치열하였던 1952년부터 시작되었으며, 기본 방향은 전후 전력복구의 수준이 아니라 프로펠러전투기를 넘어 제트전투기를 확보하여 공산군의 미그기에 대응하고, 효과적인 항공전력 편제를 구성하여 영공방위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었다.

창군 이래 지속적으로 전투기 도입을 추진하였던 한국공군은 전쟁발발과 동시에 미공군으로부터 F-51을 인수하고 출격하였지만, 미그기의 출현으로 작전에 제한을 경험하였다. 이에 제트기의 도입을 비롯한 종합적인 공군력 확장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1952년 4월부터 1955년 3월까지 F-84 제트기 300대를 보유한 4개 전투비행단을 창설하고 매년 100대씩 증가, 지원부대로 1개 지상지휘통제전대, 1개 공중지휘통제전대를 작전사령부의 통솔하에 구성, 항공보안사령부의 통솔하에 1개 공중수송대대, 1개 항공통신단, 1개 기상전대, 1개 시설부대, 항공수리창, 항공기재보급창, 일반물자보급창, 항공연료탄약창, 항공기부품제작창, 연구조사부 설치, 교육총감부의 통솔하에 공군사관학교, 비행학교, 기술학교, 통신학교, 사병교육대, 공군대학교 설치, 기타 공군병원과 9개 항공기지를 건설한다는 목표하에 「공군확장 3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¹⁾

이러한 공군력 확장을 위한 예산지원 및 군사지원은 전적으로 미공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정부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미공군에 정식으

로 요청된 본 계획은 미공군의 회의적인 반응을 받았다. 최종적으로 전쟁 중 비공식적으로 운영되던 한국공군 미고문단의 설치를 정식으로 인가하고, F-51을 20대에서 40대로 증가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당시 미공군의 입장은 한국공군이 1개 비행단을 보유하고 10개 비행기지를 유지하여 유사 시 미공군 전력이 10개 비행기지에 전개하여 공중방어를 담당한다는 것이었다. 한국공군은 1954년 일련의 한미군사회담을 통하여 한국공군의 제트전투기 보유를 강력하게 주장하여²⁾ 6·25전쟁에서 미그기에 대해 절대적인 우세를 보였던 F-86F를 1955년 6월에 도입하고 제10전투비행단에 배치함으로써 역사적인 제트전투기시대를 열었다.³⁾ 같은 해 4월에 수송기 C-46 6대를 도입하여 10월 15일 대구기지에 제5혼성비행단을 창설하여 혼성비행단 시대를 열었다. 공군무기체계 및 전력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1955년 9월 제30비행관제정보대대 창설, 10월에 제7항로보안단 창설, 1958년에 제32전술정찰비행대대 창설, 8월에 제33구조비행대대 및 제11전투비행단 창설, 10월에 제31전술통제비행전대 창설 등 전투, 정찰, 구조, 경보관련 부대를 구성하여 전술공군의 면모를 갖추었다.

초음속전투기 확보와 월남전 참전

전후 한국공군의 항공작전은 항공전력을 활용하여 적에 대하여 제공작전, 정보작전, 전략공격작전, 항공차단작전, 근접항공지원작전, 공수작전, 탐색구조작전, 국지도발대비작전 등을 수행하여 적의 전쟁의지를 말살하는 개념이었다. 그러나 전후 사회혼란과 낮은 경제력으로 인하여 최소한의 필요 항공전력을 확보하지 못하여 점진적인 전력확보를 추진하였다. 지속적인 전력증강과 편제개편을 통하여 전술공군으로 발전한 한국공군은 체계적이고 일원적인 항공작전을 위하여 1961년 7월, 오산기지에 작전사령부를 창설하였다. 2개 전투비행단을 통솔하여 평시

1. 「공군사」 2집, 1964, 87~88쪽.

2. 한국공군의 최용덕 참모총장은 미국의 아이젠하워 원수를 회견하여 제트전투기 도입에 대해 논의하고, 국회에서 의결된 공군강화안을 전달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하여 결국 1954년 11월 29일에 미국의 대한 7억불 원조에 따라 제트비행단 창설, C-46수송기 보유 등에 합의하였다.

3. 「공군사」 2집, 1964, 91쪽. 전쟁과정에서 전투기의 도입과 동시에 조종사의 훈련이 필수적이었음을 경험한 공군은 도미 제트전투기조종교육을 3차(1954. 9. 9~1955. 3. 28, 1954. 9. 27~1955. 4. 6, 1954.10.23~1955. 4.23 등 차수별 30주 교육)에 걸쳐 실시하였다.



01 공군작전의 일면을 잘 보여주는 월남파병

- 02 한국공군 현대화 및 전력증강 계획의 일환으로 F-16 전투기 2대를 최초로 도입 [1986년 4월 12일]
 03 걸프전에 참전 다국적군의 수송지원을 위해 창설된 비마부대 창설 [1991년 2월 13일]
 04 육군 방공포병 공군 전군식/공군 방공포병사령부 창설식[1991년 7월 1일]



에 적 징후를 감시하고, 정밀 타격능력을 구비하여 고도의 전투태세를 유지하며, 전시에 공중 우세를 확보하고 적 군사력 및 전쟁수행능력을 파괴하며 지·해상 군을 지원하는 작전사령부를 창설함으로써 공군력의 핵심작전인 공중우세 확보를 위한 제공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추가적으로 요격관제 및 조기경보기구의 확장에 따라 제30방공관제단을 창설하여 보유 항공전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북한공군이 미그17 및 21을 보유하여 위협적인 항공전력을 형성하자 한국공군은 전투기 기종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F-104G 전폭기 도입을 추진하였다.⁴⁾ 그러나 1962년 미 국무성의 대외군사원조정책의 변화로 F-5A/B 전폭기가 도입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다.⁵⁾ 한국공군은 1965년 4월, F-5A/B를 도입하여 운용함으로써 초음속전투기의 시대를 열었다.⁶⁾ 초음속전투기의 도입은 단순한 항공기의 도입이 아니라 운용 가능한 활주로를 보유한 수원비행장의 인수, 각종 교육·훈련체계의 운영, 경보·통제시스템의 확보, 정비·무장체계의 개선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제1전투비행단을 수원으로 이동시키고, 1967년 광주기지에 제1전투비행단을 창설하고, 1968년에 제3훈련비행단을 창설하여 조종훈련을 체계화하였다. 또한, 군수체계를 총괄하기 위해 군수사령부를 창설하여 1960년대 한국공군에 요구되었던 공군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제반 항공전력 확보 및 편제개편을 단행하였다.

지속적으로 서해와 동해에서 대간첩선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북한

의 대남공작을 차단하였으며, 월남전이 발발하자 한국공군은 1966년 10월 수송부대인 은마부대를 창설하여 C-54, C-46 수송기를 파견하여 수송작전을 수행하였다.

무적 팬텀(F-4) 도입과 한국공군의 발전

경제개발계획과 미국의 원조를 바탕으로 한국은 수출지향의 경제발전을 시작하였지만, 공군의 전력증강은 높은 국방비로 인하여 미국의 군사원조에 전적으로 의존하였다. 현대전에서 공군력의 역할과 비중을 월남전을 통해 거듭 확인한 공군은 최신 전투기의 도입을 필요로 하였다. 당시 월남전에 처음 출격하여 미그기에 대해 절대적인 성능을 발휘하였던 F-4D전폭기를 한국공군은 도입하고자 하였다. 낮은 경제력과 사회적 혼란 등 사회경제적 배경과 지상군 중심의 전쟁개념에 입각한 군사적 배경, 한국공군에 대한 낮은 인식 등 대외적 배경 등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최신 전폭기를 도입하고자 하였던 공군은 최신에 전폭기 도입을 통한 영공방위의 기대효과를 정부와 국방부에 설득하고, 전력운영능력을 미국에 설명하여 1억불의 군사원조 가운데 절반 이상이 투입되는 F-4D전폭기를 도입하게 되었다.

1969년 8월, 전 세계에서 4번째로 F-4D전폭기를 보유함으로써 막강공군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연이어 자주국방의 기반조성을 위해 1차 율곡사업을 항공전력의 질적 강화에 두고 1970년 9월 S-2A 해상초계기 도입, 1973

4. 「항공기 도입계획 개요」, 『空軍企劃』 제22호.

5. 기체가 작고 엔진이 2개로 작동이 민첩하며 제작비와 연료소모량이 적다는 이유로 미국은 F-104를 F-5A/B로 교체하여 지원하였다. 미국은 「한국공군63회계연도군원인가표」(1963. 1. 24)에서 F-5지원계획을 구체화하고, 제1차 한미합동회의(1963. 2. 1)에서 재확인하고, 주한 미공군사령관이 한국공군참모에게 보낸 「한국공군 전력목표에 대한 서한」(1963.2.6)에서 F-5A훈련계획을 인가하였다.

6. 「공군사」 4집, 1977, 49~64쪽.

7. 국방부, 「국방사」 4집, 2002, 593~668쪽.



년 6월 T-37훈련기 도입, 1973년 8월 C-123수송기 도입, 1974년 11월 F-5E전투기 도입, 1977년 9월 F-4E전폭기를 도입하여 1974년 제15전투비행단 창설, 1976년 제16전투비행단 창설, 1977년 제18전투비행단 창설, 1978년 제17전투비행단 창설 등 질적, 양적 성장을 거듭하였다.

1970년대 한국공군은 한국군의 기본군사전략인 한미 연합억제전략, 현전선결전방위전략, 반격전략, 응징보복전략을 뒷받침하고 국제정세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능한 주한미공군의 전력을 유도하고, 북한 공군력과 대등한 수준까지 공군력을 육성하며,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하는 등 억제전략, 전쟁초기 요격작전에 전력을 집중하여 제공권을 장악하고 적군의 전선돌파를 저지봉쇄하며 북한의 전력요소를 무력화시켜 전쟁의지를 박탈하는 방위전략, 그리고 단계적인 보복전략 등 공군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하였다. 이러한 당시 공군전략은 공세적인 공군력의 특성을 방위중심으로 인식하고 운영한 한계가 있었다.

한국공군은 FX사업의 일환으로 1986년 4월 F-16D전투기를 도입하고, 정보수집 및 분석을 담당하는 제37전술정보전대를 1986년에 창설하여 한미공군의 정보협조를 강화하였다. 수송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1988년 C-130수송기를 도입하고 공수능력을 강화하였다. 걸프전이 발발하자 1991년 제56공수비행단(비마부대)을 창설하여 걸프전에 파견하여 유엔군의 일원으로 활약하였다. 군편제의 조정을 통하여 1991년 방공포병사령부가 창설되어 방공포병이 공군의 일원으로 역할하게 되었으며, 자체적인 항공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1994년 12월에 KF-16 1호기를 출고하여 실전에 배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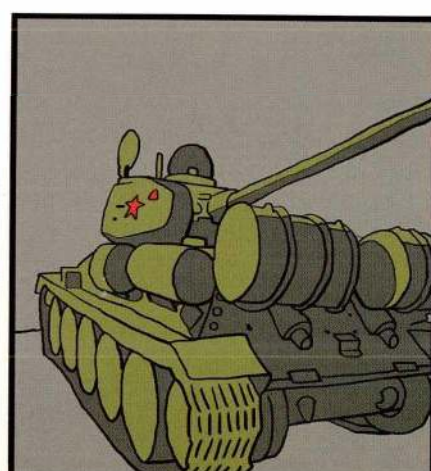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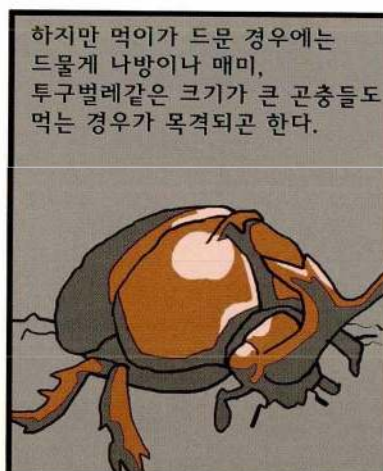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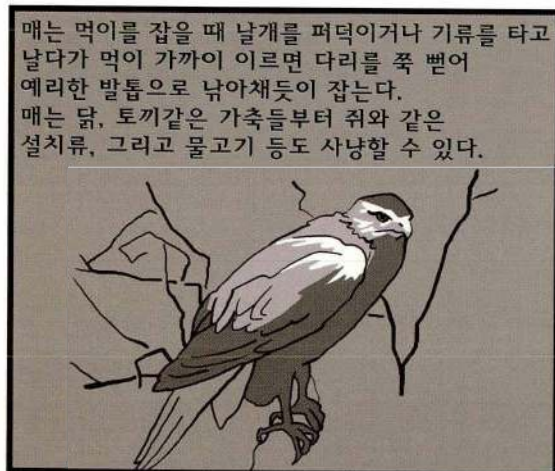
전략공군을 넘어 항공우주군으로

F-16을 주축으로 한 제20전투비행단을 서산기지에 1996년 12월 창설하여 최전

선 영공방위를 한층 강화한 공군은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따라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였다. 기존에 방어중심의 전력운영에서 적의 중심을 타격하는 공세적 공군으로 발전하여 전략공군의 면모를 갖추었다. 특히, 걸프전과 이라크전쟁에서 공군력의 효용성이 입증되면서 공군의 발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고조되었다.

공군은 한국 최초로 1997년 2월 공군사관학교에 여자생도를 입교시킴으로써 보다 우수한 인재양성의 면모를 갖추고, 2000년에 접어들면서 제32중양방공통제전대를 창설하여 정보작전과 전자전에 기반한 방공통제를 강화하고, 공군비전과 도전, 헌신, 전문성, 팀워크의 공군핵심가치를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병영문화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평시에는 친근한 공군, 전시에는 신속하게 전장을 제압하고 제공권을 장악하여 전쟁의 승리를 확보하는 항공우주군으로 발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칫 과학은 있으나 철학이 없는 기술지향의 군대, 높은 소요예산으로 인한 노후전력의 지속, 사회발전에 따른 군사시설관련 민원의 증가, 급속하게 변화하는 신세대장병의 의식문화와 기존 군대문화의 상충 등 여전한 과제가 남아 보다 많은 공군의 노력을 필요로 한다. 한국공군은 초창기 시대를 앞서는 선구자적 항공인의 전통, 독립정신에 기반한 공군정신, 절대적인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갖은 난관을 극복하고 창군에서 현재까지 발전을 거듭하였다. 미래 안보환경에서 하늘과 우주로 뻗어가는 항공우주군, 적에게 강한 공군, 선진공군, 국민에게 믿음직한 공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한국공군의 정체성을 재확립하고, 공군정신과 비전을 공유하고, 국가와 국민을 우선하는 정책과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이를 통해 한국공군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A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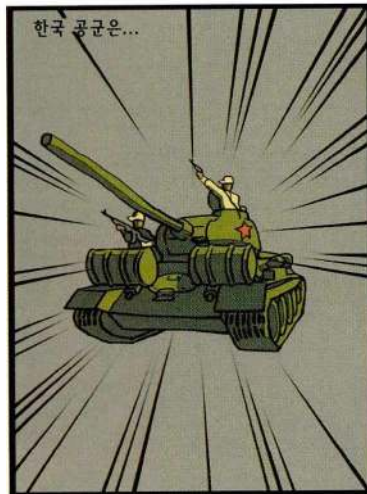


6·25 전쟁의 공군영웅기
Air Force Heroes 9

잠자리가 아닌 매,
구선진 소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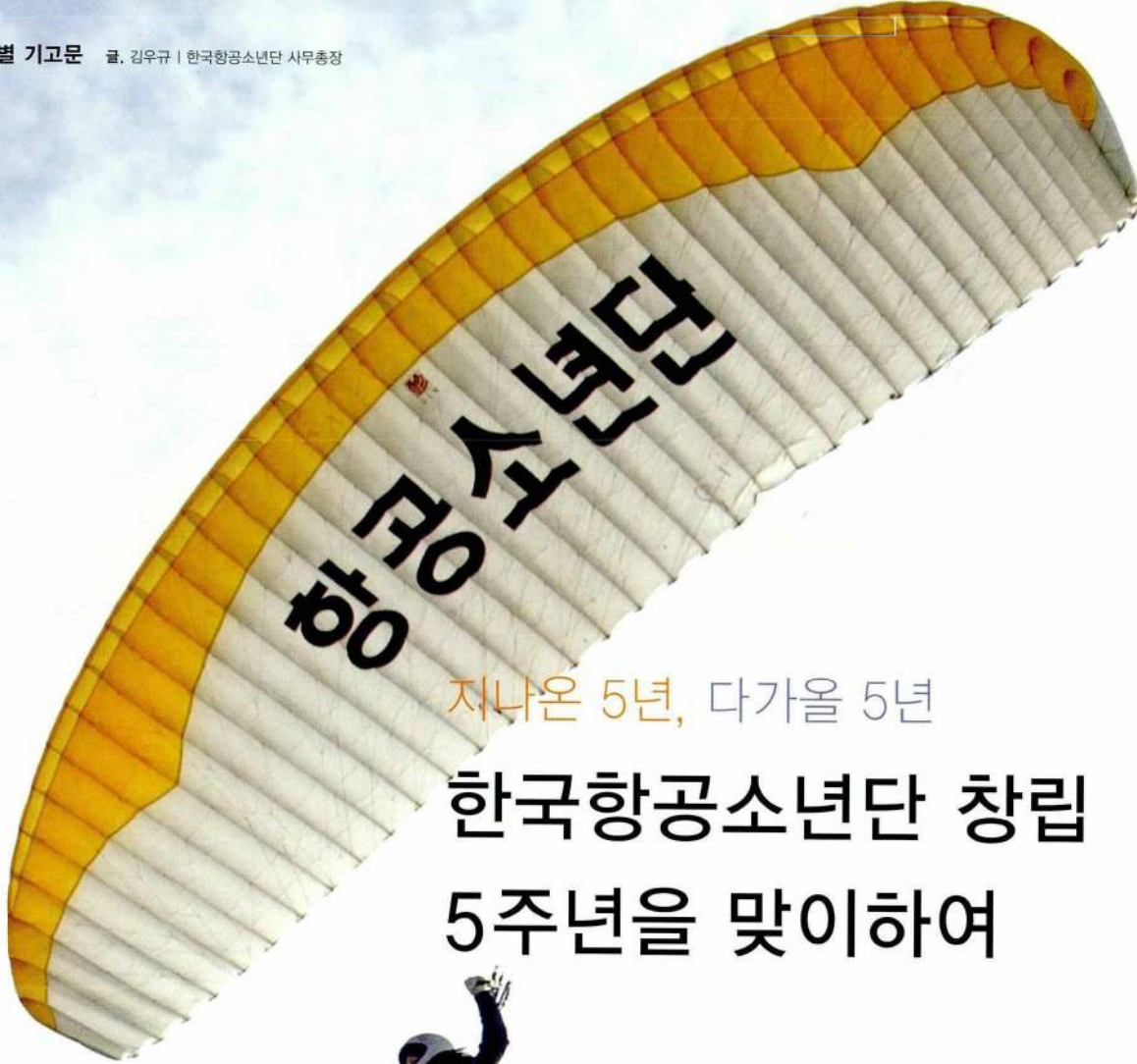
그림/토라(홍순천)





6·25전쟁 초기, 우리 공군은 일명 잠자리라 불리는 정찰기밖에 가지지 못했다. 하지만 정찰이나 연락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던 공군 조종사들은 직접 폭탄을 손으로 안고 출격해서 적을 향해 집어던지는 전후무후한 폭격을 시도한다. 6월 27일, 구선진 소위는 홀로 적진으로 출격, 적의 주력이었던 T-34탱크를 폭격하는데 성공한다. 그의 L-4기는 그 출격으로 총 열일곱 군데에 총상을 입었다. 이근석 대령이 이끄는 F-51 무스탕 전투기 열 대가 전선에 모습을 나타낸 것이 구선진 소위가 마지막 출격을 감행한 지 일주일이지난 7월 3일이었다.





지나온 5년, 다가올 5년

한국항공소년단 창립 5주년을 맞이하여



2005년 7월 13일, 21세기 인류역사의 발전은 하늘을 지배하고 우주를 개척하는 세력에 의해 주도될 것이라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하늘과 우주를 향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항공인들에 의해 한국항공소년단이 창립되었다. 1903년 라이트형제의 동력비행 성공과 1960년대 우주도전의 성공으로 본격적인 항공우주시대가 펼쳐지면서 국가안보는 최첨단 과학의 결정체인 항공우주력에 의해 좌우되었으며 항공우주산업은 국가경제에도 엄청난 파급효과를 끼친다.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항공산업에 뛰어든 지 30여 년이 지났고 최근 들어 항공우주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와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으나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항공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 및 체험교육을 시키는 청소년단체가 부재한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항공소년단의 창설은 청소년들에게 하늘을 향한 도전정신과 개척의지를 함양함은 물론 미래 항공우주인재 양성 및 국가 항공우주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이러한 국가적 사명감을 가지고 탄생한 항공소년단은 창단 초창기에는 많은 어려움도 있었다.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전국 조직망 구축, 기존 청소년단체와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우수한 지도자 양성과 확보, 항공과 우주분야 정책부처 분리 및 항공과학교육에 대한 참여와 지원 부족 등 말이다.

그러나 비록 출발은 늦었지만 산·학·연 및 군이 보유한 항공자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항공소년단 활동에 참여한 열정적이며 헌신적인 많은 지도자와 자원봉사자들이 노력한 결과 2006년 1월 '제1기 지도자훈련' 개설을 시작으로, 범국민적 항공사상고취를 통하여 21세기 항공우주강국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한 '청소년하늘축제', 항공우주력 건설의 공감대 형성 및 청소년 특성화 캠프인 '공군항공우주캠프', 평소 접하기 어려운 항공과학에 대한 이해도 증진 및 민간과학 분야의 문화역량 구축을 위하여 전국의 초등학교와 소외계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열린 '찾아가는 항공과학교실', 항공우주분야 교육의 중요성을 일선 교



육현장에 직접 전달한 '교장단 항공산업시설 견학', 미래 항공청소년지도자 양성을 위한 '청소년 항공문화체험', 그리고 '영-리더 캠프' 등 항공사상고취와 항공 과학교육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매진하였다.

한편으로는 창단 2년차에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정식회원으로 가입하여 국가적으로 인정받는 청소년단체가 되었으며, 국외활동으로는 2007년 '항공선진국 청소년항공교육프로그램 조사단' 파견과 2010년 20여 개국이 활동 중인 '국제항공소년단(IACEA) 회원 가입' 등 지속적인 국제교류활동 및 한국항공소년단의 국제적인 위상 확립에도 기여하였다. 또한 단원들의 체계적인 교육을 위하여 '항공소년단 입문 교범'을 발간하였으며, '코리아컵 모형항공기대회'도 개최하는 등 지난 5년 동안 8개 지방연맹 개설과 6,000여 명의 단원이 활동하는 가장 모범적이고 활발한 청소년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항공소년단을 사랑하고 아껴주신 많은 분들의 관심과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제 또 다시 5년, 아니 10년의 비상을 준비하고자 한다. 지나는 시간처럼 결코 쉽지만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초심으로 돌아가 준비하고, 서로를 아껴주고 위하면서 각자의 주어진 역할과 임무에 충실하다면 우리나라 항공교육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항공소년단이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항공소년단의 나아갈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본다.

먼저 다양한 창의적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2011년부터 국가교육정책으로 시행되는 '창의적 체험활동'은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이다.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단체는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있는 것이 사실이다. 청소년 연령층 감소와 유사한 프로그램 운영, 학교 교육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미흡, 전문성 높은 지도자 부족 등으로 청소년단원 감소 및 지도자 참여가 점점 낮아지는 등의 현실에서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항공소년단에서는 다양하고 질 높은, 체험위주의 창의·체

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의 항공우주과학 분야로의 진출을 적극 유도할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제1차 항공정책기본계획' 및 '2020년 항공산업 G7' 계획에도 나와 있듯이 새로운 전략산업으로서 항공산업 발전을 적극 육성한다는 것이 정부의 청사진이다. 이에 항공소년단의 역할 수행이 더욱더 중요함을 느꼈다. 우리나라의 항공산업을 이끌어 나갈 인재양성의 기틀을 잡는다는 점에서 항공소년단의 설립목적에 부합되게 체계적인 지도자 양성과 다양한 계층의 자원 봉사자 확보, 교범 제작과 교보재 및 교육·훈련장 확보 등 새로운 항공교육 문화의 정착과 보급이 당연한 과제이자 산·학·연 및 군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항공소년단은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영리법인 및 일반사업체와 달리 수익사업을 영위하는데 많은 제약조건이 있어 항공소년단 설립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교육시설 위·수탁 사업, 기금모금사업 추진, 전문 강사 양성 및 파견 등의 다양한 수익성 사업 모델 개발과 전문가 진단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등 재정 자립도 증대에 기여할 새로운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간의 흐름이 비행기 속도보다 빠르다고 한다. 지난 5년보다는 앞으로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늘 이 시점이 바로 지난 5년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다시 정립해보는 좋은 기회다. 항공소년단을 사랑하고 아끼는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관심, 그리고 조연에 보답해 드릴 수 있는 길은 바로 항공소년단 사업목적에 충실하면서 내실 있는 항공소년단 운영일 것이다. 항공소년단은 어느 누구의 것이 아닌 우리 모든 항공인들의 것이 것처럼 항공소년단의 앞날에는 하늘과 우주를 사랑하는 모든 항공인들의 역할과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 감사합니다. AF

Hollywood English 글, 이미도 | 작가, 외화번역가 <이미도의 영어선물> 등 저음

BRUCE
WILLIS

MORGAN
FREEMAN

JOHN
MALKOVICH

MARY-LOUISE
PARKER

HELEN
AND **MIRREN**



STILL ARMED. STILL DANGEROUS. STILL GOT IT.



OCTOBER 15 

Red-TheMovie.com

PG-13 PARENTS STRONGLY CAUTIONED
SOME MATERIAL MAY BE INAPPROPRIATE FOR CHILDREN UNDER 13
INTENSE SEQUENCES OF ACTION VIOLENCE
AND BRIEF STRONG LANGUAGE



〈플라이트 플랜〉 감독의 신작 액션 스릴러

정보 여행기에 탄 어린 소녀가 이륙 후 기내에서 사라진다는 내용의 영화를 아시지요? 틀림없이 함께 탑승했는데 기장과 승무원들은 탑승자 명부에 소녀의 이름이 없다고 주장하고, 소녀의 어머니는 미쳐버립니다. 항공 엔지니어인 여주인공은 죽은 남편의 시신과 함께 비행하던 중이었는데, 남편을 잃은 상실감 때문에 혹시 정신착란에라도 걸린 걸까요? 기내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의심할 때 그녀는 딸을 찾기 위해 목숨을 걸고 기내를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조디 포스터가 항공 엔지니어 역을 맡은 〈플라이트 플랜 Flight Plan〉의 스토리라인입니다. 이 영화의 영어 홍보문구는 이렇습니다. "If Someone Took Everything You Live For.....How Far Would You Go To Get It Back?" '누군가가 당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걸 모두 뺏아가 버린다면 그걸 되찾기 위해 어디까지 목숨을 걸 수 있겠습니까?'의 뜻이지요. 〈플라이트 플랜〉을 만든 감독은 독일 출신의 로베르트 슈벤트케입니다. 〈시간 여행자의 아내〉도 그의 필모그래피에 들어가는데요, 그가 이 홍보 문구에 딱 맞아떨어지는 신작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레드 RED'!

RED: Retired and Extremely Dangerous

〈레드〉는 액션 스릴러입니다. 붉은 색의 강렬한 포스터가 영화의 장르를 잘 암시해주고 있지요. 경고의 상징색이기도 한 RED는 참 흥미롭게도 'Retired and Extremely Dangerous'의 뜻입니다. '은퇴했어도 여전히 극도로 위험한 존재'라는 의미이지요. 그렇기에 〈레드〉에는 RED라 불리는 캐릭터들이 등장합니다. '왕년에 한 가닥 했다'며 뽐내고도 남을 대스타들이 대거 출연하는데요, 2010년 기준으로 현역 나이 55세의 브루스 윌리스, 73세의 모건 프리먼, 57세의 존 말코비치, 65세의 헬렌 미렌 등이 그들입니다. 그렇다면 RED라 불리는 그들은 왕년에 어디 소속이었고, 무슨 임무를 수행했으며, 전설로 통하는 그들은 왜 다시 뭉친 걸까요?

때는 평화로운 성탄절 시즌입니다. 꽃감 빼먹듯이 연금을 받아 살아가는 프랭크(브루스 윌리스)는, 우리로 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쯤 돼 보이는 곳에 전화를 해 여직원인 새라(메리 루이스 파커)에게 불평합니다. "이번 달 연금이 아직 안 왔어요." 실은 프랭크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동안 담당 여직원의 목소리에 반했고, 그 목소리를 다시 듣고 싶었고, 그녀랑 자기가 잘 땀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수작(?)을 건 것이지요. 새라도 전화로 전해지는 프랭크의 그런 관심에 끌리고 있던 중입니다. 분위기를 살피던 프랭크는 대뜸 새라가 사는 곳에 찾아가겠다고 하곤 전화를 끊습니다. 그 직후 언제 침입했는지 알 수 없는, 특수 요원으로 비치는 자들이 총구를 겨누며 프랭크에게 좁혀듭니다. 잠시 후 심겁게 제압됩니다. 누가? 특수요원들이...! 이어지는 굉음의 난사! 프랭크의 집은 벌집이 됩니다. 밖에서 대기하던 요원들이 무차별적으로 쏘댄 것이지요. 프랭크는 그들마저 툭툭 제압하곤 유유히 사라집니다.

a cat-and-mouse game

프랭크의 정체는 전직 CIA 요원입니다. 그런 그가 현직 CIA 요원들로부터 제거

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왜? 이게 이 영화를 재미있게 감상하게 만드는 의문점입니다. 새라는 느닷없이 나타난 프랭크가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전후사정 설명도 없이 그녀 또한 위험에 노출됐다고 주장하는 남자에게 "어머, 그런가요? 아휴, 무서워라!"라고 하며 무작정 품에 안길 여자는 없을 테니까! 그때부터 둘은 한 쌍으로 도망자가 되는데, 프랭크는 정보분석 전문가 조(모건 프리먼), 무기 제조 전문가 마빈(존 말코비치), 그리고 유일하게 영국 MI6 출신인 저격 전문 빅토리아(헬렌 미렌)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첨단 장비를 동원한 현직 CIA 요원들의 활약도 주도면밀합니다. 그들의 추적이 뒷덜미에까지 쫓혀 들어올 무렵 프랭크는 자기를 노리는 자가 최근 저널리스트도 암살한 사실을 포착해냅니다. 아울러 프랭크는 저널리스트가 죽기 전 비밀리에 남긴 리스트가 결정적 단서임을 밝혀냅니다. 그것은 그가 오래 전 남미의 모처에서 벌인 작전에 투입됐던 CIA 요원들의 명단이었던 것입니다. 상부의 명령에 따라 수행한 작전이었던건 세월이 까마득히 흐른 지금, RED라고 분류된 이들 전설적 요원들은 도대체 왜 제거 대상에 오른 걸까요? 중반부 이후부터 〈레드〉는 이처럼 스릴러 영화의 치밀한 장치와 스토리를 바탕으로 '쫓고 쫓기는 추격전(a cat-and-mouse game)'을 펼칩니다. 제거 명령을 내린 배후에는 거대한 시스템이 도사리고 있지만 그게 무엇 또는 누구인지는 결정적 스포일러여서 가려둡니다.

There's No Substitute for Experience.

〈레드〉가 가진 코믹 요소는 오락적 재미를 배가시켜 줍니다. '왕년의' 요원들과 '꽃내기' 요원들 사이의 설전이 특히 볼만한데요, 마빤에 잉크도 안 마른 것들이 주인공들을 향해 '노땅(Grandpa)'이라고 부를 때마다 RED 요원들은 '시뻘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꽃내기들에게 일격을 날리곤 하지요. '마빤에 잉크도 안 마른 것들'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은 'those who are wet behind the ears' 쯤 되지 않을까요? 유사한 우리말 표현에 '젖비린내 나는 녀석'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린애처럼 '손가락을 빨다'는 표현에서 만들어진 'thumb sucker'가 그것입니다. '노병은 죽지 않는다'는 분위기의 메시지를 내포한 이 영화가 내세우는 미덕의 하나는 바로 영어 홍보문구가 대신 웅변해줍니다.

"There's No Substitute for Experience." 이것이 바로 〈레드〉의 홍보문구인데요, 'be no substitute for something'을 활용한 문장이지요. 'Vitamins are no substitute for a healthy diet'라는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아무리 좋다는 영양제도 건강한 다이어트보다 좋을 순 없다'는 의미를 영어 홍보문구에 적용해 번역해보면, '구관이 명관이다' 쯤 되지 않을까요? **AF**

이미도(작가, 외화번역가)

<http://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74309>

<http://www.imdb.com/title/tt1001526/>



러시아 에르미타슈 미술관

러시아 에르미타슈 미술관 다섯 개의 건물은 상트페테르부르크가 러시아의 수도가 된 이후 매우 중요한 역사적 상징물이다. 러시아 말로 <은자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에르미타슈 미술관은 예카테리나 여제가 유럽에서 구입한 예술품을 친구들과 함께 조용히 감상하기 위해 겨울 궁전 옆에 작은 궁전으로 지은 건물이었다.

러시아가 지리적으로 유럽과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르미타슈 미술관은 고대 유물부터 근대 미술에 이르기까지 유럽의 미술의 걸작들을 소장하고 있어 루브르 박물관이나 런던 내셔널 갤러리 등 유럽의 미술관에 뒤지지 않는다. 에르미타슈 미술관은 서구 유럽 미술사의 중요 걸작을 다수 소장하고도 있지만 러시아 예술품도 관심을 기울였다. 러시아 문화사 유물 등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러시아 예술품들은 러시아 국민들에게 자국의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주고 있다. 에르미타슈 미술관은 270만점에 이르는 소장품들을 고대 세계의 유물부터 동양 문화, 고고학 유물, 17~18세기 플랑드르 미술, 13~18세기 이탈리아 미술, 15~18세기 프랑스 미술 등 주제별로 열다섯 개로 나누어 전시하고 있다.

에르미타슈 미술관이 자랑하는 대표적인 걸작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리타의 성모>다. 성모 마리아는 옷을 살짝 걷어 아기 예수에게 젖을 먹이고 있다. 성모는 아기 예수가 편안하게 젖을 먹을 수 있도록 손으로 잡고 있으면서 시선은

온통 아기 예수에게 향하고 있다. 아기 예수는 손으로 젖을 잡고 있으면서도 성모와 눈을 맞추지 않고 정면을 바라보고 있다. 성모의 오뚝한 코, 미소 띤 입술, 도통하게 나온 이마는 르네상스 시대에 이상적인 여인상이며 성모의 붉은색 옷은 성스러운 하늘을, 파란색 옷은 하늘의 진실을 상징한다.

아기 예수가 발가락을 움직이고 있는 것과 성모의 시선이 아기 예수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은 종교적인 면보다 인간적인 면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아기 예수가 성모를 바라보지 않고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예수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을 나타낸다. 아기 예수가 왼손에 쥐고 있는 방울새는 예수의 수난을 상징하고 있는데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끌고다 언덕을 지나고 있을 때 머리 위에서 날고 있던 방울새 한 마리가 예수 이마에 박혀 있는 커다란 가시를 보고 부리로 뽑았다. 그러자 예수의 피가 방울새에게 튀어 방울새는 빨간 점이 박힌 새가 되었다. 예수의 핏방울이 묻혀 있는 방울새는 수난을 상징하는 새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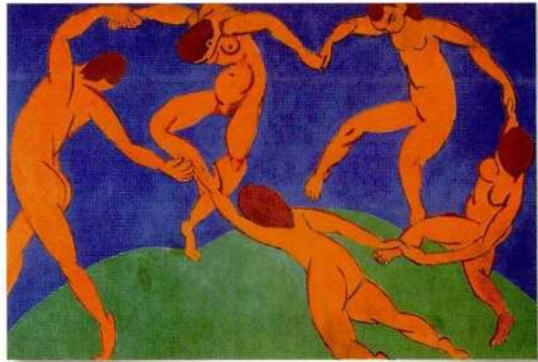
레오나르도 다빈치(1452~1519)의 이 작품은 밀라노 시절에 완성한 것으로 제목이 <리타의 성모>라고 불리게 된 것은 밀라노의 백작 리타의 의뢰로 그려졌기 때문이다. 이 작품은 아기 예수와 성모의 윤곽이 부드럽지 못하고 평범한



〈리타의 성모〉
1490년, 캔버스에 유채, 42*33



〈깨진 계란〉
1756년, 캔버스에 유채, 73*94



〈춤〉
1909~1910년, 캔버스에 유채, 269*391

배경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제자들을 시켜 완성했다는 의구심을 받고 있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성모의 모습을 드로잉한 것이 루브르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어 그가 작품 제작에 전체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이 확실하다.

에르미타주 미술관에서 도덕성 강조하고 있는 작품이 장 바티스트 그로즈의 〈깨진 계란〉이다. 이 작품은 정절을 잃어버린 여인을 계란으로 비유해 표현했다. 하얀 옷을 입은 젊은 여인이 깨진 계란 옆에 앉아 있다. 그 옆에 술이 취한 듯 얼굴이 붉은 남자가 흐트러진 옷차림을 하고 서 있다. 늙은 여인은 왼손으로는 남자의 손을 잡고 오른손으로 깨진 계란을 가리키고 있다. 화면 오른쪽 어린아이는 깨진 계란을 담고 있다. 어린 아이가 담으려고 애를 쓰는 깨진 계란은 한번 잃은 정절은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으면 그 옆에 있는 활과 화살통은 큐피드를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젊은 여인과 남자가 사랑을 나눈 사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이 작품에서 18세기 프랑스 보통 가정의 실내를 묘사했지만 인물들의 옷차림과 자세는 이탈리아식의 역사화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모습이다. 장 바티스트 그로즈(1725~1805)는 우화작가 장 피에르와의 나눈 대화 속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 작품의 주제와 마찬가지로 정절을 잃은 여인을 주제로 몇 작품을 제작했다. 그는 이 작품을 공식적인 살롱전을 입상을 목적으로 제작했으며 당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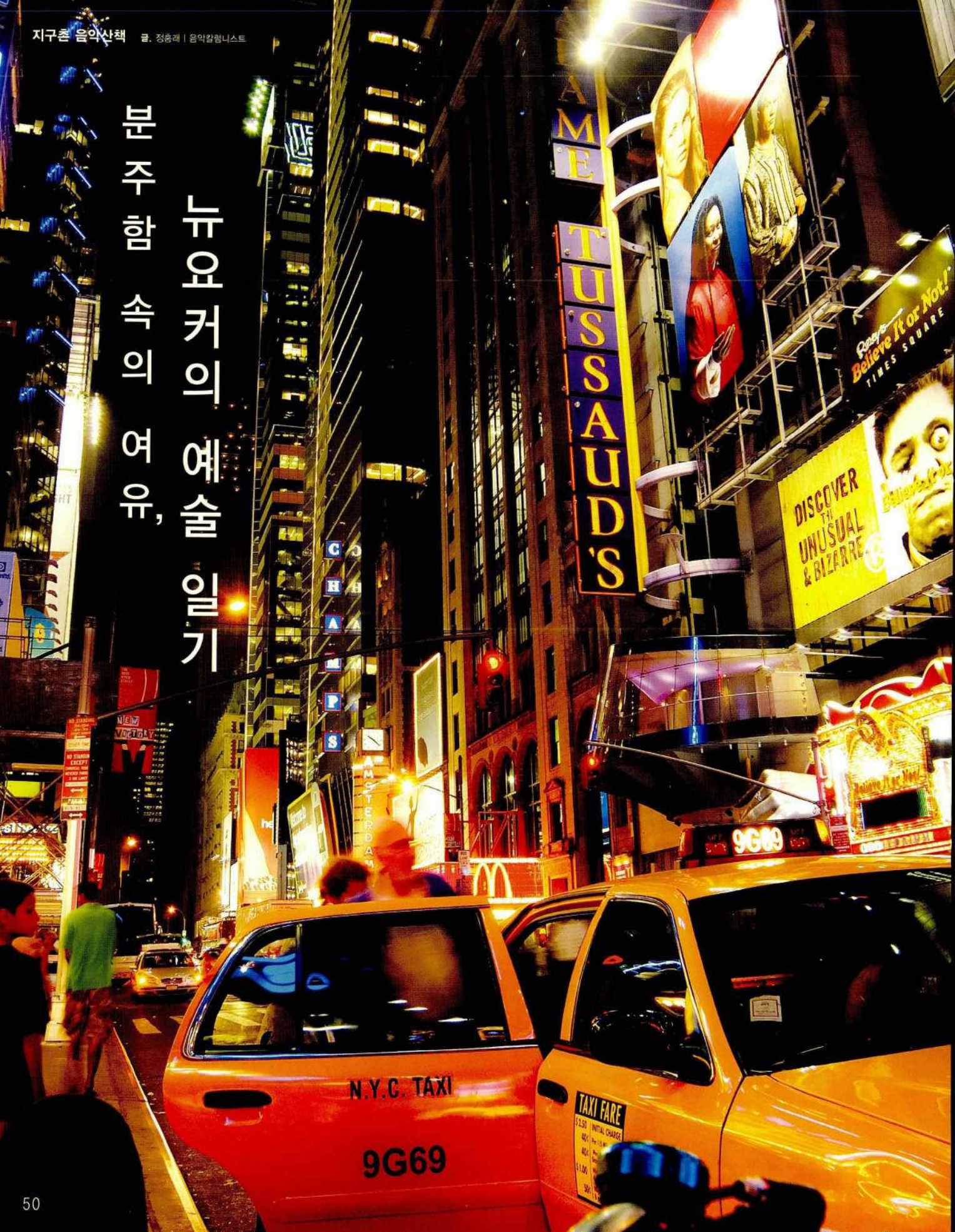
평론가들은 그로즈의 작품을 보고 '그림으로 된 도덕'이라고 불렀다.

에르미타주 미술관에서 근대 미술 작품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마티스의 〈춤〉이다. 이 작품은 마티스의 초기 작품인 〈삶의 기쁨〉에서 모티브를 따와 확대한 것으로 그에게 춤은 삶의 기쁨과 리듬의 정수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화면 왼쪽에 있는 무희가 무용수들의 리더로 그를 중심으로 다섯 명의 무희들이 원을 그리며 춤을 추고 있다. 리더 외에 네 명의 무희들은 몸이 가벼워 공중에 떠다니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화면 오른쪽 무희는 뒷걸음치고 있고 그 옆에 있는 무희는 리더의 손을 잡기 위해 팔을 내밀고 있다.

녹색의 반원 위에서 무희들은 손을 잡고 시계방향으로 춤을 추고 있다. 녹색은 대지의 수평선을 상징하며 파란색은 하늘을 나타낸다. 하늘과 땅 그 사이에서 시계방향을 돌고 있는 무희들은 춤을 통해서 무한한 시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앙리 마티스(1869~1954)가 프로방스 지방의 민속춤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한 이 작품은 1909년 컬렉터인 러시아인 세르게이 슈추킨이 자신의 집을 장식하기 위해 〈음악〉과 함께 의뢰했다. 마티스는 1911년 〈음악〉 위에 이 작품을 걸기 위해 직접 모스크바를 방문했다. AF

분주함 속의 여유, 뉴욕커의 예술 일기



이름만 들어도 가슴 설레는 도시, 뉴욕. 이 화려한 도시는 다른 어느 곳에서 상상하지 못할 '뉴욕'이라는 매력적인 사람들을 탄생시킨다. 전 세계의 패션을 선도하는 패셔니스타의 거리, 세계 금융의 중심지 월스트리트, 그리고 맨해튼 한가운데 자리한 아름다운 센트럴 파크... 이곳 뉴욕의 거리는 언제나 새롭게, 그러면서도 다양함을 잃지 않는 모습으로, 뉴욕자들에게 또 다른 희망을 안겨준다.

지난 6월에 개봉된 영화 [섹스 앤 더 시티 2]를 본 평론가와 관객들은 이 영화에 냉담한 시선을 보냈다. 중동의 아부다비로 촬영지를 옮긴 이 영화는 뉴욕을 배경으로 하는 오리지널 시리즈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혹평을 받은 이 영화 속에도 명장면이 있었으니, 그것은 중동 여성들의 패션이었다. 평소 두 눈만 드러내고 검은색 '차도르'로 온몸을 감싸는 중동의 여인들... 우리에게서는 그들을 구분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중동 남성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는 그녀들도 화려한 패셔니스타가 된다. 검은색 천을 벗어던진 뒷방의 여인들. 그들은 뉴욕 최신 트렌드의 의상을 입고서 자신들만의 매력을 뽐내고 있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차별받는 중동의 여성들이 이러하다면, 다른 곳에 사는 여인들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 뉴욕이라는 도시가 주는 그 행복한 환상에 모든 여성들은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한다. 무엇이 이렇게 수많은 여심을 설레게 만들까... 그리고 사람들의 바쁜 걸음을 사로잡고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뉴욕에서 희망을 찾지만, 그 누구보다 큰 기대감으로 뉴욕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예술가다.

뉴욕에서 가장 매력적인 장소로 꼽히는 브로드웨이... 1880년 미국 최초로 전기 가로등이 놓였던 이곳은 꺼지지 않는 빛의 향연으로 화려한 관광지가 되었다. 이곳 브로드웨이에 자리잡은 슈버트(Shubert) 극장, 뮤지컬 [코러스 라인]을 올렸던 것으로 유명한 이 극장의 기념 명판에는 이런 말이 새겨져 있다. "이 좁은 골목을 오가며 극문화에 기여한 모든 이들에게 바친다." 그것은 슈버트 극장의 좁은 골목 앞을 서성대며, 단 한 번이라도 무대에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줄을 섰던 수많은 무명배우들을 위한 찬사인 것이다.

이처럼 이름만으로도 화려하고 매력적인 브로드웨이는 50년 전에도 그 명성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었다. 당시 이 거리를 수놓았던 작품은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라는 뮤지컬. 미국의 작곡가 '레너드 번스타인(Leonard Bernstein)'이 음악을 맡았던 이 작품은 실제로 뉴욕의 어퍼 웨스트 사이드(Upper West Side)의 빈민가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다.

양속 관계였던 이탈리아계 집단과 푸에르토리코계 집단은 영역을 넓히기 위해 끊임없이 대결한다. 이때 등장하는 두 젊은 남녀, 마리아와 토니... 이들은 세익스피어가 만들어낸 연인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시작한다. 결국 두 집단의 다툼으로 목숨을 잃게 되는 토니...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토니의 시체 앞에서 반목했던 두 집단은 화해하게 된다.

뉴욕을 배경으로 전개되는 현대판 '로미오와 줄리엣'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이 작품을 음악으로 그려낸 작곡가 번스타인은 아이

러니컬하게도, 황폐한 빈민가였던 이곳 웨스트 사이드를 철거하는데 기여한 음악가이기도 하다. 번스타인은 당시 1천명도 넘게 거주하던 이 슬럼가를 철거하고 미국 최초의 공연 예술단지인 '링컨 센터'를 설립하는데 앞장선다.

미국을 대표하는 종합예술공연장 '링컨 센터'와, 세계에서 음향 효과가 가장 뛰어나다는 '카네기홀'... 이 두 곳은 뉴욕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을 대표하는 연주회장이기도 하다. 1891년 카네기홀이 개막될 때, 개막식에 참가한 앤드류 카네기(Andrew Carnegie, 1835~1919)는 연설 중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카네기홀은 미국 역사와 함께할 것이다." 철강왕 카네기의 기금으로 건축되어 카네기홀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이곳은 실제로 최고의 음향효과와 실내장식을 자랑하는, 세계 최고의 음악회장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 점에서 이곳 카네기홀이 꿈의 무대로 그려지는 것은 당연하다. 지난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던 피아니스트 김지은 양의 소식도 바로 이곳 카네기홀에 대한 이야기다. 창립 이후 처음으로 미국 순회 연주를 다니는 '베트남 국립 오케스트라'는 함께 무대에 오르는 협연자로 우리나라의 피아니스트 김지은 양을 선택했다. 베트남에서 독학으로 피아노를 연습한 김지은 양은 이곳 카네기홀에서 연주한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 주었다.

또 영화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에게도 이곳 '카네기홀'은 그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꿈의 공간이다. 메릴 스트립스가 주연을 맡았던 [뮤직 오브 하트]에는 어려서부터 그저 딱딱한 삶밖에 경험해보지 못한 빈민가 아이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학부모들의 무관심과 반대 속에서도 아이들에 대한 애정으로 음악을 가르치는 '로베르타'... 그녀는 결국 빈민가 아이들과 함께 이곳 카네기홀에서 연주한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아이작 스타인'과 함께 연주하는 마지막 장면...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가장 감동적인 휴먼 스토리였다. 이처럼 세계 최고의 카네기홀은 미국 음악계의 중심이자, 전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된 꿈의 무대다.

그렇다고 뉴욕이 이처럼 클래식 음악만의 중심지인 것은 아니다. 한때 수많은 갤러리들이 모여 있었던 예술가들의 거리 '소호', 예술계의 흐름을 주도하는 미술관과 박물관... 이곳은 명실상부한 전 세계 문화예술의 메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감동적인 무대는 뉴욕의 거리 곳곳에서 들려오는 악사들의 음악이다. 길거리 한 모퉁이에서 홀로 연주하는 거리의 악사, 금빛으로 울려 퍼지는 관악 앙상블, 그리고 그 어떤 연주장에서보다 감각적인 재즈 연주자들... 뉴욕의 이 거리에는 매력적인 도시만큼이나 멋진 음악이 끊이지 않는다.

늘 정신없이 돌아가는 바쁜 일과 중에도 잠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찾는 뉴요커들... 그들의 헛헛한 마음을 달래주는 건, 그 어떤 음악회장에서든 느낄 수 없는 거리 예술가들의 음악이다. 오직 뉴욕에서만 느낄 수 있는 도회적인 보헤미안 예술가들의 음악... 그들은 뉴요커의 감각으로 늘 새롭게 태어난다. **AF**

WEST SIDE STORY



번스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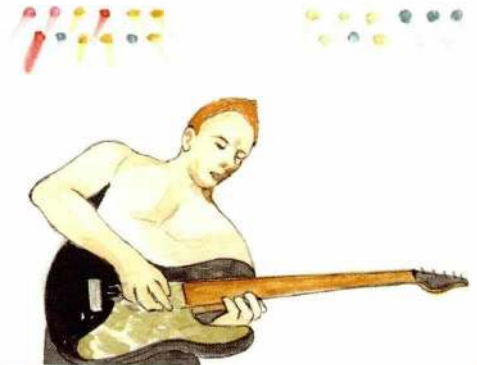


카네기홀

불가능,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릭 앨런(Rick Allen)은 영국의 유명 메탈 밴드인 데프 레파드(Def Leppard)의 드러머입니다. 데프 레파드는 1980년 처음 데뷔한 이래 본 조비와 함께 이른바 '팝메탈(Pop Metal)'의 기수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릭 앨런에게 어느 날 갑자기 커다란 불행이 닥쳤습니다. 1984년 자동차 전복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고의 여파로 그는 왼쪽 팔을 절단해야만 했습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아티스트에게 팔을 잃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누구도 그의 재기를 믿지 않았습다. 심지어 릭 앨런 자신까지도 말이지요.

그러나 3년이 지난 1987년, 데프 레파드는 〈Hystseria, 히스테리아〉라는 새로운 앨범을 발표하게 됩니다. 오늘날까지 이 앨범은 1,200만 장이 넘는 판매고를 올렸고, 이 앨범에서만 무려 7곡의 싱글 히트곡이 나왔습니다. 물론, 여전히 이 밴드의 드러머는 릭 앨런이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왼팔을 잃은 이후, 릭 앨런은 깊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실의를 딛고 특수 드럼세트에 앉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드러머로서 한쪽 팔을 잃는다는 것은 사망선고와 마찬가지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에 용기 있게 첫 발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새 앨범 〈Hystseria〉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릭 앨런이 드럼 스틱을 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앨범을 들어본 사람은 누구나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쪽 팔이 없는 드러머의 퍼포먼스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정확하고 파워 넘치는 드럼 비트가 앨범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데프 레파드는 통산 10번째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데프 레파드의 리더들은 '외팔의 드러머' 릭 앨런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불가능, 그것은 나약한 자들의 핑계에 불과하다. 불가능,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하나의 의견일 뿐이다. 불가능,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Impossible is Nothing.’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던 이 광고 카피처럼, 불가능은 깨기 힘든 ‘사실이 아니라 하나의 의견’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 생의 첫 경험



1994년 여름, 당시 나의 나이는 열여섯 살,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하고 있던 중학교 3학년 학생이었고 연합고사를 통해 고등학교에 입학해야만 했던 나에게 그해 여름방학은 이른바 명문고 진학을 위해 가장 중요한 시기였다. 아침, 저녁으로 집 근처에 있는 도서관에 다니며 열심히 공부하던 중에 나의 넋을 쏙 빼놓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다.

누가 그랬던가? 공부할 때는 술, 여자, 당구를 조심하라고, 물론 그 나이에 술과 당구를 할 때는 아니었고 문제는 여자였다. 도서관을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이었다. 열심히 공부하던 중에 잠시 기지개를 펴기 위해 자리 너머를 향해 고개를 드는 순간 웬 여학생이 나의 눈에 들어오고 만 것이다. 인근 중학교 교복을 입고 도서관 밖으로 걸어 나가는 그녀의 모습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첫사랑이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그 여학생을 지켜봤다. 매일 저녁 보충수업을 마치고 마자 교복을 입을 채로 도서관의 문이 닫힐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는 그녀를 보면서 나 역시 도서관의 문이 닫힐 때까지 앉아서 공부했다. 어느덧 그녀와 나는 도서관에서 가장 늦게 집에 가는 학생이 되었다. 그러나 나의 첫사랑을 고백하기에 나는 부끄럼이 너무 많았고 결국 그렇게 여름방학 내내 가슴앓이를 하다가 2학기를 맞이하고 말았다.

행여 등굣길에 만나기라도 할까 기대해보았지만 그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만 알고 있을 뿐 단 한 번도 다시 만난 적은 없었다. 연애란 것을 하기에 너무 어린 나이기도 했고 인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그냥 그렇게 체념하고 학력고사를 치렀고 고등학교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 그리고 중학교 마지막 겨울방학을 맞이하면서 고등학교 진학 준비를 위해 학원을 다니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기적처럼 그녀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

학원 강의 첫날, 나는 지각을 하고 말았는데 뒤늦게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서 순간 앉아있는 그녀를 발견하고 만 것이다. 머릿속은 텅 비어버리는 느낌이었고 숨이 멎을 것만 같았다. 그야말로 번개 같은 것이 온몸을 뚫고 지나가는 듯한 전율을 느꼈고 그날 하루 종일 강의실 뒷자리에 앉아 뭔가에 홀린 듯 멍하니 그녀의 뒷모습만 바라보았다.

그러나 학원을 다니는 동안 인사만 겨우 할뿐 더 이상 가까워지지 못하고 두달 여의 겨울방학이 순식간에 지나가자 고등학교에 입학하면 더 이상 다시 만날 수 없을 것만 같은 걱정이 커지기 시작했다. 결국 용기를 냈다. 밤새 고민하며 편지를 써서 고백하기로 한 것이다. 용기 있는 자만이 미인을 얻는다고 하였던가! 그렇게 반년 동안의 나의 가슴앓이는 단 한 통의 편지만으로 결실을 맺었고 연애라기보다는 서로의 학업에 도움을 주고, 격려해주는 든든한 친구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다.

어느 해보다 유난히 포근했던 겨울이 끝나고 우리는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을까 그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다. 아버지의 급작스런 전근으로 가족들 모두가 서울로 전학을 가게 되었다고 말했다. 처음 만나기 시작했을 때 전학에 대한 가능성을 이야기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빨리 이별을 맞이하게 될 줄은 몰랐다. 만나자마자 헤어져야만 하는 사실에 전화를 끊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랐다. 그렇게 친구를 서울로 보내고 몇 번의 편지 연락이 있었다. 그러나 한창 학업에 매진해야 할 때에 여자 친구와의 편지 연락을 부모님께서서는 쉽게 허락하지 않으셨고, 자연스럽게 소식을 전하는 일에 소원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영부영 고등학교 1학년을 보내고 겨울방학을 맞이했는데 어느 날 집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그녀였다. 며칠 전 예전의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울산을 다녀갔는데 우연히 나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고는 목소리가 듣고 싶어 연락을 했다는 것이다. 너무나 반가웠다. 그 사이 고등학생들에게 일명 뽀빠라고 불리는 무선호출기가 유행처럼 번졌고 이후 그녀와 뽀빠를 통해 다시금 연락을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부모님과 선생님께서도 걱정을 하셨지만 서로의 공부에 대해 염려해주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둘의 우정을 적극적으로 믿고 지원해주셨다.

이렇게 부모님과 선생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고등학교 2학년을 보내고 그해 겨울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녀를 만나기 위해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다. 거의 2년만의 만남이었다. 서울 강남 고속터미널에서 그녀를 만났다. 그리고

친구의 안내를 받으며 1박 2일간의 짧은 데이트를 위해 첫발을 내딛는 순간 고속터미널 앞 현철 차량에 발목을 잡히고 말았다.

현철을 하고 가라고 나의 팔을 끌어당기는 봉사자와 물고려미 나를 지켜보던 첫사랑. 그 순간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현철에 대한 두려움과 그래도 남자인데 첫사랑 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뭔가 모를 기사도 정신이 나의 마음을 흔들리게 했다. 그러나 나의 선택은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겠다는 생각에 멈춰 섰고 아무렇지 않은 듯 현철 차량에 올라 20여 분에 걸쳐 내 생의 첫 현철을 했다.

그렇게 처음으로 시작한 현철을 10여 년이 훌쩍 넘은 지금까지 60여 회 가까이 하게 되었다. 기간으로 치면 분명 많은 현철 횟수는 아니지만 봉사를 위한 생각보다는 사랑하는 이에게 잘 보이기 위한 요량으로 고등학교 2학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처음으로 현철을 하는 순간 내가 가진 건강한 몸으로 조금이나마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된 것이다.

얼마 전 그 첫사랑으로부터 편지가 왔다. 청첩장과 함께 곧 결혼한다는 소식이었다. 나 역시 그녀보다 석 달 앞선 지난 가을 나의 마지막 사랑과 결혼을 했다. 이제 돌이켜보면 입가에 절로 웃음이 지어지는 어린 시절의 추억이 되어버렸지만 내 생의 첫 경험인 현철을 통해 진정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준 첫사랑에게 감사하며, 그녀 역시 자신의 마지막 사랑과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게 잘 살아가기를 두 손 모아 진심으로 기원해본다. **AF**



10월호를 읽고서

L E T T E R S T O T H E E D I T O R

월간 「공군」은 [폭죽]이다. 폭죽을 보면 신기하고 화려하며 신선 01
함을 주는데 월간 「공군」의 모습과 잘 매치가 된다. <9·28 서울
수복 60주년 및 국군의 날>에 대한 내용이 재미있었다. 준비과정
에 대한 글이나 T-50비행기가 어떻게 변했는지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좋았다. 다음에는 공군의 얼굴, 꽃이라고 불리는 의장대에
대해 알고 싶다. 실제로 의장대의 모습을 본적이 있는데 구체적으
로 하는 일이 궁금하다. - 충북 청주시, 정병권

02 월간 「공군」은 [아빠]다. 자상하고 근엄한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자하게 창공에서 우리 국민을 향해 웃음으로
활공하고 적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고도 엄격하게 대응하
며 우리 국민을 지켜주기 때문이다. <World-Wide Vision>에
B-1기사가 가장 좋았다.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전장상황
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투입되어 전투 능력을 소화할 수 있는
기사내용이 좋았다. - 서울 영등포구, 이택원

월간 「공군」은 [신병]이다. 매달 새로운 내용으로 발간되기에 03
신병처럼 기다려지고 풋풋하다. <생각하는 그림>에 '두려움에
무너지지 않는 용기'가 가장 좋았다. '인빅터스'란 영화를 통해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의 화합, 용서, 그리고 불굴의 의지를 보
았다. 영화를 보고 감동했었는데 그대를 다시 회상할 수 있었다.
다음 호에는 월간 「공군」을 만드는 편집자의 하루가 궁금하다.
- 충남 계룡시, 최창호

04 월간 「공군」은 [등불]이다. 전후세대의 한국 국방 체제 및 현재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공군력의 중요성을 쉽게 알 수 있도
록 해주는 그리고 그러한 역할을 통해 미래를 밝혀주는 등불이
다. <Global AF>에 '푸틴의 러시아, 소련 공군의 영광을 재현
하는가?'란 기사가 가장 관심을 끌었다. 예전의 영광을 되찾으
려는 러시아의 모습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KAI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 - 충남 계룡시, 홍제원

월간 「공군」은 [특식]이다.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나오지만 05
항상 기다려지기 때문이다. <내 생애 잊지 못할 운동회>가 가장
기억에 남았다. 나의 어릴 적을 회상하며 잠깐 동안이나마 미
소를 머금을 수 있었고 군대에 있어 생각하지 못한 우정에 대
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었다. 다음호에서는 6주간의 신
병 훈련을 다뤄졌으면 한다. - 광주 광산구, 임익준

06 월간 「공군」은 [정보]이다. 공군에 대한 정보를 월간 「공군」을
통해 하나씩 접해가면서 한층 공군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새
웃 입은 블랙이글스를 뜻깊은 국군의 날에 볼 수 있어서 즐거
웠다. 새롭게 블랙이글스에 대한 기사를 접하면서 한층 팬이 되
어간다. - 대구 동구, 조상욱



2010 December

no.390

P O S T C A R D

독자와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월간 「공군」에서는
여러분들의 애정이 담긴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보내주신 편지들은 지면상의 공간을 이유로 편집될 수
있습니다. 비록 소개되지는 못했지만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실 곳은 독자
엽서나 월간 「공군」 59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

요 금
수취인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0.5.1~2011.4.30

제501군사우체국
제 1 호

받는 사람 321-929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501군사우체국 사서함 309호
월간 「공군」 편집실



2010 December

no.390

P O S T C A R D

월간 「공군」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 월간 「공군」은 □□이다.

.....

◎ 월간 「공군」 12월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었던 글은?

.....

◎ 월간 「공군」에서 다뤘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은?

.....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

퀴즈 정답

1. _____

2. _____

3. _____



퀴즈 정답자에게는
월간 「공군」 표지와
동북아 최고의 전투기
F-15K가 입혀진
카드 USB 4G를
보내드립니다.



월간 「공군」 12월호를 잘 읽고 문제를 풀어 독자퀴즈 엽서 뒷면에 답해주세요.

정답엽서 마감일 : 12월 31일까지

1. 2차 불곰사업을 통해 도입된 회전익기로 꼬리에 로터가 없는게 특징이며 호버링(Hovering)이 탁월한 기종은 무엇인가?
2. 국민들의 비행기 헌납운동을 통해 캐나다에서 수입한 기종으로 건국기라고 불렸던 기종의 명칭은?
3. 뉴욕의 어퍼 웨스트 사이드(Upper West Side)의 빈민가를 배경으로 전개되는 뮤지컬로 현대판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평가를 받는 작품은?

10월호 독자퀴즈 정답 및 당첨자

정답 1. T-50B 2. PAK-FA T-50 3. 유연성, 활공시간
퀴즈 당첨자 대구 동 구 조상욱 ● 광주 광산구 임익준 ● 충남 계룡시 홍제원
서울 영등포구 이택원 ● 충북 청주시 정병권 ● 충남 계룡시 최창호

〈월간 「공군」 독자들을 필자로 모십니다〉

보내실 곳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사서함 501-309 정훈공보실 문화홍보과 월간 「공군」 담당
(우편번호 321-929)

이메일 tribune44@gmail.com(인터넷)

tribune44@af.mil(인트라넷)

전화번호 02-506-6935 / 042-552-6935

월간 공군과 2010년 한 해를 함께 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